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기관지

제364호 【루계 제24412호】 주체102(2013)년 12월 30일 (월요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령도의 중심, 단결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자!

사 설

위대한 최고사령관을 모신 민족적영광을 온 누리에 떨치자

선군은 조선혁명의 생명선이고 영원한 진군로이다. 총대로 개척되고 총대의 위력으로 전진하는 우리 혁명에서 백두의 혈통은 곧 총대혈통이며 선군령도의 빛나는 계승은 모든 승리와 번영의 근본원천으로 된다.

오늘 우리 조국과 혁명, 우리 식 사회주의는 선군의 기치높이 승리의 한길을 따라 과감히 전진하고있다. 선군혁명의 길에서 더욱더 순결해지고 백배해진 우리 일심단결의 위력이 힘있게 분출되고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강성번영의 기상이 온 누리에 떨쳐지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이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뜻깊은 올해를 빛나게 결속한 승리자의 긍지드높이 희망찬 새해를 마중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을 맞이하고있다.

주체100(2011)년 12월 30일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우리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또 한분의 불세출의 령장을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혁명의 근본문제, 군건설의 계승문제가 완전무결하게 해결되고 민족만대의 존엄과 번영을 위한 결정적담보가 마련되게 되였다. 이날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 조국과 혁명의 백전백승의 명맥이 굳건히 이어지고 백두산총대의 위력으로 선군조선의 새 력사를 창조해나가는 장엄한 투쟁의 시대, 변혁의 시대가 펼쳐질수 있었다. 반제투쟁사에 특기할 대승리를 이룩하며 거창한 창조와 건설로 인민의 모든 꿈을 이루어나가는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불멸의 영웅서사시는 곧 백두령장의 비범한 최고사령관실록이다.

지금 우리 군대와 인민은 희세의 선군령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조국청사에 새로운 승리와 변혁의 년륜을 수놓아가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에 넘쳐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나라와 민족의 강대성, 혁명위업의 불패성은 혁명군대를 통솔하는 최고사령관의 위대성에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현시대의 그 어느 군사가도 따를수 없는 천재적인 군사적자질과 품격을 지니고계시는 군사의 영재이시고 천하제일명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일찍부터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총대와 함께 선군혁명의 폭풍우를 헤쳐오시였다. 수령의 위업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출중한 령도실력으로 위대한 장군님의 선군정치를 충직하게 받들며 주체의 군건설위업의 새로운 전성기를 펼쳐오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력사의 필연이고 우리 조국과 민족의 최대의 혁명적경사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시고 우리 혁명을 이끌어오신 지난 2년은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필승불패성이 힘있게 과시되고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강대성과 강성번영의 기상이 높이 떨쳐진 잊을수 없는 로정이였다. 이 나날에 우리 인민뿐아니라 온 세계가 혁명무력의 최고사령관으로서의 경애하는 원수님의 천출위인상을 깊이 새기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년간 총대를 백승의 보검으로 틀어쥐시고 불면불휴의 선군령도로 주체적군건설위업을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오시였다.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는것으로부터 새로운 주체100년대진군의 첫 자욱을 새기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력사의 생눈길을 진두에서 헤치시며 끊임없는 선군혁명령도의 길을 이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선군장정은 현시대의 그 어느 령장도 따를수 없는 탁월한 군사적예지와 지략, 강철의 의지와 무비의 담력, 비범한 령군술과 숭고한 덕망으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최고사령관실록은 그야말로 자욱자욱이 충격적이고 영웅적이고 전설적이였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최고사령관으로 모시였기에 우리의 선군혁명위업은 모진 풍파속에서도 생기를 잃지 않았고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배심든든하여 강성국가건설의 최후승리를 위한 총진군을 힘차게 다그쳐올수 있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밑에 인민군대가 정치사상적면에서나 전략전술적면에서, 군사기술적면에서 최정예의 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 온 나라가 금성철벽의 성새로 억척같이 다져졌다. 반미대결전에서 민족사에 특기할 혁혁한 승리가 이룩되였으며 백두산대국의 존엄과 위용이 만방에 더 높이 떨쳐졌다.

선군혁명의 줄기찬 계승과 강성국가건설에서의 세기적변혁으로 빛나는 지난 2년간의 투쟁을 통하여 우리 군대와 인민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민족적행운인가를 심장깊이 절감하고있으며 원수님의 령도따라 나아가는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더욱 확신하고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군건설사상과 령도업적을 견결히 고수하고 끝없이 빛내여나가시는 백두의 선군령장이시다.

혁명무력을 이끄는 최고사령관의 위대성은 혁명을 개척하고 승리적으로 전진시켜온 수령의 위업을 빛나게 계승발전시켜나가는데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시고 위대한 장군님께서 발전풍부화하신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자위로선은 혁명무력건설의 지도적지침이고 조국과 민족의 영원한 재보이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선군의 기치밑에 주체의 군건설사에 쌓아올리신 업적은 20세기와 21세기의 정치군사적기적으로 찬연히 빛나고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군사사상과 군건설업적은 오늘 경애하는 원수님에 의하여 꿋꿋이 계승되고 끊임없이 심화발전되고있다.

군건설과 군사활동을 철두철미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밝혀주신대로만 해나가고 대원수님들의 사상과 전법, 업적에 토대하여 더욱 강화발전시켜나가는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투철한 령군신조이고 령군방식이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슬하에서 성장하시며 선군혁명승리의 철리를 깊이 체득하신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대원수님들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리론은 혁명무력건설의 고귀한 지침으로 되고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지난 2년기간에만도 **김일성**군사종합대학과 인민군대의 수많은 부대들을 쉬임없이 찾으시여 독창적이며 가장 우월한 대원수님들의 전략전술을 더 잘 연구하고 그에 기초하여 현대전법과 작전전술적방안들을 완성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위대한 장군님의 혁명사상, 선군사상을 집대성하시고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병진로선을 제시하신것은 주체의 군건설사에 특기할 공적으로 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혁명실천과 장구한 반제반미대결전에서 그 우월성과 생활력이 힘있게 과시된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을 더욱 발전풍부화하시고 자위적민간무력의 전투력을 비상히 높이심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군사사상과 군건설업적은 세기를 이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였다.

오늘 우리 조국땅우에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선군혁명력사가 줄기차게 흐르고있다. 수령의 사상과 위업에 대한 무한한 충정과 고결한 도덕의리심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끄시기에 백두산절세위인들의 군사사상과 업적은 선군조선의 만년재보로 길이 빛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우리 인민군대를 사상과 신념이 투철하고 불패의 전투력을 지닌 무적강군으로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천출명장이시다.

사상과 신념의 총대, 바로 여기에 백두산혁명강군의 근본특징이 있고 무적필승의 위력이 있다.

지난 2년간 우리 조국땅우에 첨예하고 엄혹한 정세가 조성된적이 한두번이 아니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기가 겹쌓이고 온갖 사나운 광풍이 몰아칠수록 우리의 사상과 위업의 필승불패성을 락관하시며 인민군장병들의 가슴마다에 조국수호의 사명감, 총대의 사명감을 억척같이 심어주시였다. 인민군부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사상사업정형부터 알아보시며 군인들을 사상과 신념의 강자로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을 당정치사업의 주선으로 틀어쥐고나가도록 하시고 군인들의 사상교양에 이바지할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더 잘 마련해주도록 하신분이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이시다. 우리 총대에는 오직 수령의 사상만이 맥박치고 백두의 넋과 기상만이 차넘쳐야 한다는것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드팀없는 혁명적립장이다. 인민군장병들과 함께 몸소 나무를 심으시며 그들의 심장에 **김정일**애국주의의 불길을 지펴주시고 적들의 총구가 도사리고있는 최전방초소에까지 나가시여 무적의 힘과 용기를 안겨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령도가 있었기에 우리 인민군대는 주체의 당기를 혁명의 제일군기로 틀어쥐고나가는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게 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천변만화하는 탁월한 군사적지략과 그 어떤 뢰성벽력에도 끄떡하지 않는 무비의 담력을 지니고계신다. 최근년간에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은 극도에 달하였지만 그때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누구도 예측할수 없는 대담한 결단과 초강경대응조치들을 련이어 취하시였다. 서남전선의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하고있는 장재도와 무도를 찾으시여 적들이 단 한발의 포탄이라도 떨군다면 지체없는 섬멸적반타격으로 서해를 최후의 무덤으로 만들고 조국통일대전으로 이어가라고 하신 원수님의 명령은 온 세계를 진감시켰고 원쑤들을 전률시켰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정의의 선군보검을 억세게 틀어쥐시고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 세계의 평화와 안전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위대한 수호자이시라는 격찬의 목소리들이 그 어디에서나 울려나왔다.

위대한 최고사령관의 슬하에서 무적강군이 자라난다. 오늘 우리 인민군대는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완벽한 실전능력, 무자비한 타격력을 지니고 적들과 백번 싸우면 백번 다 이기는 필승불패의 강군으로 위용떨치고있다.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슬기와 기상,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고 강력한 전쟁억제력까지 갖추고있는 무적강군이 바로 우리 인민군대이다. 적들의 그 어떤 전쟁각본이나 침략술책도 백두산혁명강군의 기상앞에서는 맥을 추지 못하고 물거품으로 되고있다. 투철한 사상과 강철의 신념, 필승의 용맹으로 만장약된 백두산총대의 위력에는 한계가 없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열화와 같은 동지애, 전우애로 우리 혁명무력을 일심단결의 강군으로 빛내여나가시는 자애로운 령장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께 있어서 인민군군인들은 혁명의 길을 끝까지 함께 갈 신념의 제일동지이며 믿음과 사랑은 백승의 철학이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장정의 갈피마다에는 사랑하는 병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사선천리길도 마다하지 않으시고 평범한 전사들과 한치의 간격도 없이 뜨거운 혈연의 정을 나누신 전설같은 이야기들이 수없이 새겨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선군령도는 언제나 총잡은 군인들속에서 흘렀고 병사들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무한한 헌신으로 수놓아져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전투임무수행중에 장렬하게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위훈을 길이 빛내이기 위하여 세상에 없는 병사릉을 세워주시고 자신께서 직접 묘주가 되시여 그들모두를 영생의 언덕에 내세워주신것은 주체의 군건설사에 찬연히 빛날 혁명적전우애, 혁명적동지애의 정화이다. 최고사령관도 지휘관도 병사들을 위하여있고 총대로 조국을 보위한 사람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는 숭고한 동지관을 지니시고 그들을 위해 온갖 은정을 다 베푸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믿음과 사랑은 오늘도 끝없이 이어지고있다.

우리 인민군대는 전군이 최고사령관과 운명의 피줄을 잇고 생사를 함께 해나가는 불패의 통일체이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가야 할 혁명의 길에서 자기 최고사령관을 뜻과 정, 의리로 따르고 지휘관과 병사들이 참된 전우, 진정한 동지가 되여 목숨도 아낌없이 바치는것이 우리 인민군대의 참모습으로 되고있다. 동지적사랑과 헌신에 기초한 전군의 일심단결, 바로 이것이 우리 인민군대가 선군혁명의 억척의 지지점, 믿음직한 척후대가 되여 당의 위업을 앞장에서 받들어나갈수 있게 하는 힘의 원천이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는 인민군대를 주력군으로 하여 강성국가건설에서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켜나가시는 걸출한 령장이시다.

우리 조국력사에서 지난 2년은 창조와 건설의 새로운 전성기가 펼쳐진 긍지높은 년대기로 빛나고있다. 이것은 위대한 장군님식대로 인민군대를 믿고 준엄한 난국을 헤치시며 그들의 핵심적역할에 의거하여 화를 복으로, 역경을 순경으로 전환시켜나가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를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훈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대상건설도, 경제강국건설과 사회주의문명국건설도 인민군대가 앞장에서 돌파구를 열어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다. 거창한 기념비적창조물건설을 인민군대에 통채로 맡겨주시고 인민군군인들이 《마식령속도》창조의 불길드높이 건설의 최전성기를 펼쳐나가도록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신분이 경애하는 원수님이시다. 낮과 밤이 따로없이 험한 건설현장들을 찾고 또 찾으시며 남들이 열걸음, 백걸음을 걸은것을 단번에 뛰여넘는 단숨에의 기상과 불굴의 개척정신, 하나를 설계하고 건설해도 미래를 내다보며 대담하고 통이 크게 작전하고 실천해나가는 담대한 배짱을 키워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는 인민군군인들이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창조할수 있게 한 원동력이였다.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진군길에서 솟아난 창조물들마다에는 우리 인민군대의 고귀한 피와 땀이 스며있다. 시대와 력사를 주름잡는 특출한 창조방식, 무한대한 열정을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손길아래서 우리 인민군대는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의 제일기수로서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며 이르는 곳마다에 민족사에 길이 빛날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수많이 일떠세웠다.

건설의 최전성기를 대번영기로 이어나가야 하는 오늘의 총진군대오의 앞장에는 인민군대가 서있다. 최고사령관이 결심하면 무조건 해내고야마는 결사관철의 정신을 지닌 인민군대에는 점령 못할 요새가 있을수 없다. 조국과 혁명의 믿음직한 수호자,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인 인민군대가 있기에 우리의 강성국가건설위업은 침체와 답보를 모르고 언제나 활력에 넘쳐 전진하게 될것이라는것이 우리 인민이 실천투쟁속에서 심장깊이 새긴 철리이다.

오늘 우리앞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굳게 뭉쳐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빛나는 승리를 이룩해나가야 할 성스러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대를 이어 수령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크나큰 민족적영광을 가슴깊이 새기고 선군의 기치높이 위대한 **김정은**시대를 거창한 창조와 변혁, 승리와 번영의 시대로 끝없이 빛내여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심을 지니고 원수님의 두리에 단결하고 단결하고 또 단결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선군조선의 태양이시며 우리모두의 운명이시다. 경애하는 원수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과 혁명대오의 통일단결을 철통같이 다지는 여기에 우리 혁명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우리 조국의 찬란한 미래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인민군장병들, 인민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따라 이 세상끝까지 주체혁명의 한길로 억세게 나아갈 철석같은 신념을 지녀야 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원수님의 두리에 사상의지적으로, 도덕의리적으로 더욱 굳게 뭉쳐야 한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원수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세우며 최고사령관동지의 사상과 령도를 일편단심 충직하게 받들어나가야 한다.

수령결사옹위는 우리 혁명의 고귀한 전통이다. 우리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안녕과 권위를 백방으로 옹호보위하여야 한다. 그가 누구이든 감히 당에 도전하고 백두의 대업을 가로막으려든다면 혁명의 붉은 칼, 무자비한 철추로 단호히 징벌하여야 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뜻과 정을 영원히 같이하며 당을 따라 백두에서 시작된 주체의 행군길을 꿋꿋이 걸어가는 신념의 인간, 량심의 인간, 의리의 인간이 되여야 한다.

당의 선군령도를 높이 받들어 나라의 군사력을 천백배로 다져나가야 한다.

선군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하는 필승의 보검이며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우리는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철저히 선군의 원칙에서 풀어나가야 한다.

선군혁명의 기둥, 주력군인 우리 인민군대는 명실공히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군대이며 우리의 총대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옹위하고 최고사령관동지의 령도만을 받드는 백두산총대이다. 전군에 최고사령관 명령에 절대복종하고 오직 최고사령관동지께서 가리키시는 방향으로만 총구를 내대고 곧바로 나아가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워야 한다. 백두의 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인민군장병들을 백전백승의 **김일성**-**김정일**전략전술과 대담무쌍한 공격방식,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진짜배기싸움군들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기강이 강하고 안팎으로 멋있는 최정예혁명강군의 정규화적면모를 더욱 훌륭히 갖추어나가야 한다. 명령만 내리면 지체없이 달려나가 적들을 격멸소탕할수 있게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를 견지하며 전군의 모든 중대를 군인들의 정든 집, 따뜻한 보금자리로 만들어야 한다.

현대전의 요구에 맞는 우리 식의 최첨단무장장비들을 더 많이 개발생산하여야 한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철저히 세우고 전국을 철벽의 요새로 굳건히 다져나가야 한다.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이 땅우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보란듯이 일떠세워 인민의 모든 꿈을 꽃피우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을 가슴에 새기고 오늘의 하루하루를 영웅적위훈으로 수놓아가야 한다. **김정일**애국주의로 심장을 불태우며 21세기의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로 질풍같이 내달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과학기술에 강성국가건설의 운명이 달려있다는것을 명심하고 과학기술중시의 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모든 부문을 과학화해나가야 한다. 인민군장병들은 당의 군대, 수령의 군대답게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에서 불가능을 모르는 혁명강군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쳐야 한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불굴의 투쟁정신, 투쟁기풍을 따라배워 온 나라에 단숨에의 기상, 강행돌파의 공격정신이 나래치게 하여야 한다. 군민대단결, 군민협동작전의 위력으로 강성부흥의 활로를 열어나가며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의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로 세차게 타오르게 하여야 한다.

모두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숭고한 전우관을 지니신 천하제일명장

경애하는 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에 즈음하여

무도영웅방어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9월

조선인민군 제36차 군무자예술축전에 당선된 중대군인들을 만나주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0월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된 조선인민군 해군 제790군부대 용사들의 묘를 찾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1월

☆

☆ ☆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991군부대를 방문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1월

완공을 앞둔 마식령스키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2월

완공을 앞둔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7월

완공단계에 이른 문수물놀이장건설장을 돌아보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9월

월내도방어대를 시찰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9월

조선인민군 제354호식료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1월

조선인민군 제313군부대관하 8월25일수산사업소를 현지지도하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주체102(2013)년 12월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경축

중앙보고대회 진행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경축 중앙보고대회가 29일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진행되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신것은 민족만대의 생명선인 백두산총대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우리 당의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갈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며 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크나큰 긍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 뜻깊은 날을 맞이한 우리 군대와 인민은 백두의 천출명장이신 **김정은**동지의 거룩한 위인상과 령도실력을 심장깊이 절감하며 경애하는 원수님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고있다.

대회장인 4.25문화회관은 선군의 기치높이 인민군대를 필승불패의 **김일성**, **김정일**혁명강군으로 빛내이시고 경제강국,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를 펼치시며 우리 조국의 끝없는 부강번영을 이룩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심과 충정으로 끓어번지고있었다.

대회장정면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휘날리는 붉은 기폭에 모셔져있었다.

《조선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조선로동당 만세!》,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라는 구호들이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배경에는 승리와 영광의 상징인 원수별모형과 《경축 2돐》이라는 글발이 걸려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 최대의 영광을 드립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성으로 받들자!》라는 구호가 대회장에 나붙어있었다.

주석단에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로농적위군 군기들이 세워져있었으며 명예위병들이 서있었다.

대회에는 당, 무력, 정권기관, 사회단체, 성, 중앙기관 일군들, 조선인민군, 조선인민내무군 장병들, 평양시내 기관, 공장, 기업소일군들, 로력혁신자들이 참가하였다.

군인생활을 개선하기 위해 당의 사상관철전, 당정책옹위전을 힘있게 벌려 올해에 전례없는 물고기대풍을 마련하는데 적극 이바지한 조선인민군 수산부문의 열성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영남동지, 박봉주동지,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김기남동지, 최태복동지, 박도춘동지, 김영춘동지, 양형섭동지, 강석주동지, 김원홍동지, 김영일동지, 김평해동지, 곽범기동지, 문경덕동지, 최부일동지, 김창섭동지, 로두철동지, 조연준동지와 김영대 조선사회민주당 중앙위원회 위원장, 무력기관, 내각,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책임일군들, 당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모범적인 군대와 사회의 일군들, 영웅들, 공로자들이 주석단에 나왔다.

대회는 《혁명무력은 원수님 령도만 받든다》노래주악으로 시작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가 보고를 하였다.

대회는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유일중심, 령도의 유일중심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며 전군**김일성-김정일**주의화의 기치높이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강성국가건설위업의 최후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갈 참가자들의 혁명적열정이 차넘치는 가운데 진행되였다.

《**김정은**장군 목숨으로 사수하리라》노래주악으로 대회는 끝났다.

【조선중앙통신】

위대한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조선인민군은 영원히 백전백승할것이다

중앙보고대회에서 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최룡해동지의 보고

오늘 온 나라 전체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선군의 기치따라 강성조선의 찬란한 미래를 열어나가는 끝없는 긍지와 필승의 신심에 넘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을 성대히 경축하고있습니다.

당과 혁명의 전도를 좌우하는 중대한 시기에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혁명무력의 강화발전과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결정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의 한결같은 의사를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모심으로써 민족만대의 생명선인 백두산총대혈통을 굳건히 고수하고 조선혁명의 백전백승의 력사를 빛나게 계승해나갈수 있는 영원한 담보가 마련되게 되였습니다.

우리 군대와 인민이 민족대국상의 슬픔을 천백배의 힘과 용기로 바꾸어 새로운 주체100년대의 위대한 승리를 향하여 억세게 투쟁해나갈수 있게 된것은 력사의 이날을 떠나 생각할수 없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력사에서 12월 30일은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 최고사령관복을 누리는 태양민족의 행운을 깊이 새겨주고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승승장구하는 혁명위업의 전도에 대한 확신을 끝없이 북돋아주는 영광의 날로 영원히 빛나게 될것입니다.

동지들!

혁명위업계승에서 관건적인 문제는 군령도의 계승이며 그것은 위대한 령장을 혁명무력의 수위에 모실 때 빛나게 실현될수 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일찌기 총대와 깊은 인연을 맺으시고 어버이장군님과 선군혁명의 길에 함께 계시며 우리 혁명무력을 진두에서 이끌어오신 또 한분의 백두의 천출명장이시며 주체의 군건설위업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신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한 령장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지난 2년간의 군건설령도실록은 위대한 장군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군건설업적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켜나가시는 한없이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로 빛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총대로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할 철석같은 의지를 지니시고 군건설의 전반적분야에서 어버이장군님의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는데 모든 힘을 다하여오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전군 **김일성-김정일**주의화를 군건설의 총적임무로 규정하시고 인민군대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군대, 선군혁명의 믿음직한 척후대, 억척의 지지점으로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독창적인 군건설리론과 방침들을 제시하신것은 80여년의 우리 건군사에 특기할 거대한 공적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백두산절세위인들의 체취가 어리여있는 인민군부대들에 대한 현지시찰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시며 우리 당의 군건설력사를 뜨겁게 새겨주시고 가시는 곳마다에서 혁명사적비와 혁명사적교양실, 연혁소개실부터 돌아보시면서 모든 군인들이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불멸의 군사사상과 군건설업적을 빛내여나가도록 이끌어주시였습니다.

전승 60돐과 공화국창건 65돐을 맞이한 뜻깊은 올해에 장엄한 열병식들과 다채로운 경축행사들이 진행되고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관이 새로 훌륭히 일떠선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탁월한 군사사상과 반제전승업적을 길이 빛내여나가시려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드팀없는 의지의 과시로 됩니다.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주체의 건군위업을 이끄시는 한 우리 인민군대는 영원히 위대한 **김일성**, **김정일**동지의 군대로 빛을 뿌리게 될것입니다.

지난 2년간은 희세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특출한 군사적자질과 위대성이 남김없이 과시되고 우리 건군사와 강성국가건설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장이 펼쳐진 뜻깊은 나날이였습니다.

한 나라 군대와 인민의 력사에서 2년은 순간에 지나지 않지만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조국수호와 번영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서 남들이 몇십년이 걸려도 성취할수 없는 참으로 거대한 업적을 이룩하시였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가장 치렬한 반제대결전에서 련전련승하며 최후승리를 위한 돌파구를 열어놓으신 불멸의 업적으로 하여, 강의한 의지와 뛰여난 군사적예지, 탁월한 령군술을 완벽하게 지니신 그 위인적풍모로 하여 오늘 세계적인 명장으로, 21세기의 선군태양으로 높이 칭송받고계십니다.

력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같이 그처럼 짧은 기간에 가장 높은 명성과 권위를 지니고 세계사회계, 정치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령도자를 알지 못하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인민군대를 천하무적의 백두산혁명강군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켜나가시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군사의 영재이십니다.

총대에 혁명사상과 최첨단군사과학기술을 결합시켜 인민군대를 그 누구도 범접 못하는 불패의 강군으로 만드시려는것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 일관하게 견지하고계시는 군건설원칙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서의 인민군대의 혁명적성격을 변함없이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것을 당정치사업의 총적목표로 내세우시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도록 하심으로써 사상강군건설에서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도록 하시였습니다.

전군선전일군회의와 조선인민군 꿈결에도 뵙고싶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품에 안겨 울고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가슴을 치는 바다물에 뛰여들어 목청껏 《만세!》를 웨치며 따라서는 군인들의 모습은 전군이 최고사령관의 위대한 심장에 운명의 피줄을 잇고 생사운명을 함께 해나가는 선군혁명전우애의 숭고한 화폭으로 세인을 격동시키고있습니다.

천리방선의 초소와 병영들이 정든 고향집처럼 병사들의 따뜻한 보금자리로 꾸려지고 관병일치, 군정배합이 훌륭히 실현되여 전군이 동서고금에 없는 혼연일체의 강군으로 다져지고있는것은 혁명적동지애의 최고화신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만이 이룩하실수 있는 불멸의 공적으로 됩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는 선군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에서 기적을 이룩해나가시는 창조의 거장이십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이 땅우에 세계가 우러러보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한 대건설작전을 펼치시고 그 앞장에 언제나 인민군대를 내세워주시였습니다.

인민군대가 새로운 일당백공격속도, 《마식령속도》를 창조하며 온 나라를 대비약에로 선도해나가도록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올해를 건설에서 최전성기의 해로 되게 할데 대한 당의 구상이 빛나게 실현되게 되였습니다.

약동하는 젊음으로 비약하는 조국땅우에 기념비적인 창조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솟아나고 경제전반이 새로운 활력에 넘쳐 전진하며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개화기가 열려지고있는 경이적인 현실에서 우리는 총대를 앞세우고 천만군민의 꿈을 이루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탁월한 령도력을 심장으로 절감하고있습니다.

우리 당의 선군정치의 위력과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적대세력들의 반공화국책동이 악랄하게 감행되는 속에서도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이 전민족적인 범위에서 힘있게 벌어지고있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습니다.

오늘 세계가 경탄하는 우리 당, 우리 군대, 우리 조국의 높은 권위와 영예는 곧 희세의 정치거장이시고 불세출의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지니신 절대적인 권위이며 영예입니다.

뜻깊은 이 자리에서 전체 인민군 장병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흠모의 마음을 담아 백두산대국의 태양이시며 영원한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예와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앞에는 위대한 당의 령도따라 사회주의강성국가를 하루빨리 일떠세우고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주체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해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께서 한평생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계시면서 품들여 마련해주신 선군의 총대를 더욱 억세게 틀어쥐고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이 땅우에 통일된 강성국가를 일떠세우려는것은 우리 당의 확고한 결심이며 의지입니다.》**라고 말씀하시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주체적인 군사사상과 불멸의 건군업적은 혁명무력건설의 지도적지침이며 선군조선의 만년재보입니다.

전체 인민군장병들과 인민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의 모습을 언제나 마음속깊이 간직하고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한치의 드팀도, 한걸음의 양보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함으로써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혁명생애와 선군령도사가 영원히 흐르게 하여야 하겠습니다.

전당, 전군, 전민이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으로 높이 받들어모시며 당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철저히 확립하는것은 주체혁명위업완성을 위한 가장 중대한 과업입니다.

인민군대는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견결히 옹위해나가는 **김정은**제일결사대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당정치사업을 강화하고 오중흡7련대칭호쟁취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서 활력있게 벌려 전군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명령, 지시에 따라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혁명적령군체계와 군풍을 더욱 철저히 세우며 인민군대의 혁명적본태를 변함없이 고수하여야 하겠습니다.

전군강화의 중심고리이며 출발점인 중대에서부터 백두산훈련열풍을 세차게 일으켜 모든 장병들이 **김일성-김정일**군사전략전술과 영웅적투쟁정신, 완벽한 실전능력을 소유한 일당백의 용사, 훈련영웅이 되며 언제나 격동상태에서 조국방선을 철벽으로 지켜야 하겠습니다.

지휘성원들은 후방사업이자 사회주의수호전이며 군인생활개선은 곧 싸움준비이라고 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가르치심을 명심하고 군인들의 물질문화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투쟁에서 획기적인 전진을 이룩하여야 하겠습니다.

국방공업발전에 최우선적인 힘을 넣어 우리 식의 위력한 무기전투기술기재들을 더 많이, 더 질적으로 만들어내여 인민군대의 무장장비를 끊임없이 현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정일애국주의를 소중히 간직하고 불굴의 정신력을 총폭발시켜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투쟁에서 결정적전환을 가져와야 합니다.

인민군장병들은 인민의 행복의 창조자로서의 사명감을 깊이 간직하고 대건설전투장마다에서 영웅적위훈을 떨침으로써 로동당시대 건설의 대번영기를 앞장에서 열어나가야 하겠습니다.

선군시대의 위력한 투쟁방식인 군민협동작전으로 당의 웅대한 대건설구상을 실현하며 우리 사회의 밀뿌리인 군민대단결을 더욱 철통같이 다져나가야 하겠습니다.

모든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인민군대의 혁명적군인정신, 단숨에의 기상으로 생산돌격전과 최첨단돌파전을 과감히 벌리고 전민과학기술인재화를 실현하며 문화건설의 모든 분야를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이에 올려세워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하루빨리 승리의 붉은기를 휘날려야 하겠습니다.

온 사회에 군사중시기풍을 더욱 튼튼히 세우며 영예군인들과 조국보위의 길에서 희생된 군인들의 유가족들을 성심성의로 돌봐주는 미풍이 높이 발휘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지금 미국은 남조선괴뢰들과 함께 방대한 무력과 핵전쟁수단들을 동원하여 침략전쟁연습을 더욱 광란적으로 벌리면서 조선반도에 핵전쟁의 재난을 들씌우려 하고있습니다.

우리의 총창우에 평화가 있다는것은 강성국가건설력사가 확증한 진리입니다.

우리 인민군대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새 전쟁도발책동을 단호히 짓부시고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할것이며 만일 적들이 우리 조국땅에 한점의 불꽃이라도 떨군다면 침략자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평화, 친선의 리념에 따라 대외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고 동북아시아와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는데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입니다.

백두의 천출명장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우리 군대와 인민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의 두리에 굳게 뭉쳐 선군혁명의 최후승리를 향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의 조직자이며 향도자인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만세!

희세의 선군령장을 모시여 백승의 기상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

(시) 오직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장 명 길

숭엄히 나붓기는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러
불타는 심장들이 터치는 결사
옹위의 맹세
—오직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우리 장군님 맡기고 가신
인민의 운명을 지켜
천만대적앞에
사나운 파도우에
한몸 서슴없이 내대시는분
그 누구도 대신할수 없는
백두산총대의 주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가 우리의 최고사령관이
시다

피눈물의 언덕에서
그이 억척같이 틀어쥐고 나서신
백두산총대
이 총대를 운명의 기둥으로
부여안고
천만군민이 산악같이 일떠섰
나니

그이 아닌 어느 누가
원쑤의 총구가 노리는 전호가에서
통일성전의 작전도를 펼칠수
있으랴
날새도 깃을 접는 전선고지의
메부리에서
병사들과 팔을 끼고 전우의
정을 나눌수 있으랴

무쇠철갑의 진격로들과 은빛
매들의 활주로에서
조국의 수호자 남편들을 위해
바치는
군인가족들의 수고를
헤아리시는분
섬초소 아기의 생일도 잊지
않으시고
귀한 자식들을 초소에 세운
이 나라 어머니들의 심정도
안아보시는분

그이는 백두산강군의 위대한
령솔자
그이가 이 땅에 계시기에
조국은 마음껏 창조하고 건설
하는것이다
천년을 책임지고 만년을 보증
할 기념비들이
사회주의문명의 빛을 뿌리며
세상이 보란듯이 솟구치는것
이다

무적의 힘
필승의 기상
인민에 대한 열과 정이 그리도
뜨거우신
백두의 령장을 높이 모신 내
조국
오늘보다 더 황홀하고 풍요해
지리
밝은 미래를 안고 사는 마음
들이
운명의 하늘처럼 최고사령관기를
우러르노라

그이 눈부신 리상
그이 품으신 필생의 념원
태양의 빛발 한줄기라도
감히 막아서고 가리우려는
원쑤들
우리 백두산총대는 무자비
하게 징벌하리라

자나깨나 우리 심장속에
운명의 어버이로 모시고 사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그이를 위함이라면
한몸 육탄이 되여야 할 순간이
와도
우리는 웃으며 그 길을 택하
리라

최고사령관기 날리는 하늘아
래서
달리 흐를수 없는 우리의 세월
김정은장군 그이만을 믿고
사는
천만의 신념 천만의 의지
하늘땅을 떨친다

우리의 백두산총대는 언제나
원수님 안녕 지켜 불을 뿜으
리라
이 세상 끝까지
그이의 위업을 위해 복무하리라
오직 최고사령관동지를
위하여!

내 조국은 금성철벽

내 조국의 천리방선초소마다에서 멸적의 총검들이 번뜩이고있다.

위대한 선군령장의 손길아래 일당백의 용맹을 떨치는 백두산혁명강군이 격동의 순간을 기다리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인민군대는 무적의 혁명무력으로 강화되고 사회주의 우리 조국은 위력한 군사강국으로 국제무대에 당당히 나서게 되였습니다.》

지난 3월 중순 대연평도, 백령도타격에 인입되는 열점지역 포병구분대들은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도밑에 실전능력판정을 위한 실탄사격훈련을 진행하였다.

꽝, 꽝—

천지를 진감하며 노호하는 포성과 함께 대기를 헤가르며 번개같이 날으는 포탄들이 적대상물들로 가상한 목표들을 집중적으로 타격하였다.

적진과의 실지거리를 타산하여 진지를 차지한 주체포와 방사포들에서 날린 포탄들도 목표들을 정확히 때렸다.

조선인민군 포병의 실전능력을 남김없이 보여준 또 한차례의 위력한 화력전이였다.

…

그후 진행된 훈련에서도 인민군장병들은 하늘과 바다로 덤벼드는 《적》들과 《적진》을 통쾌하게 쓸어버렸으며 당장이라도 명령만 내리면 상상할수 없는 무자비하고 위력한 타격으로 원쑤들을 짓뭉개버릴 멸적의 의지를 힘있게 시위하였다.

—만약 적들이 우리 공화국의 하늘과 땅, 바다를 감히 침범한다면 순간에 죽음과 멸망의 함정에 빠지게 될것이다.

미제의 강도적인 침략야망으로 나라의 정세가 날로 첨예해지고있는 속에서 진행된 실탄사격훈련장면들을 보면서 우리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선군령장을 높이 모신 영웅적조선인민군을 당할자 세상에 없다는 필승의 신심으로 충만되여있었다.

우리 인민군대는 앞으로도 적들의 침략전쟁도발책동을 걸음마다 짓부셔버릴것이며 영원히 최고사령관기를 힘차게 휘날리며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총대로 굳건히 받들어나갈것이다.

본사기자 홍 성 철

혁 명 군 대 의 영 광

천리방선에 환호소리 드높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만세!

선군혁명력사에 길이 빛날 12월 30일,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을 맞이한 경사로운 이 아침 무성한 총대숲을 이룬 천리방선의 용사들이 열화같은 매혹과 흠모를 담아 감격의 함성, 충정의 메아리를 높이 울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령장으로서의 품격과 자질을 훌륭히 갖춘 백두산형의 장군입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우러러 만세의 환호성을 터치는 인민군군인들의 얼굴마다에 어려있는것은 이 땅의 조국수호자들이 대대로 누리는 끝없는 영광과 행복이다.

혁명군대의 영광!

그것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숭엄한 마음을 안고 저 멀리 흘러간 세월을 뒤돌아보니 안도의 밀림속에서 절세의 위인 김일성동지께 조선의 운명을 의탁하며 항일유격대원들이 높이 부르던 만세소리가 들려온다. 빛나는 조국력사의 갈피에 선군혁명령도의 첫 자욱을 찍으시고 인민군대를 명실공히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 인민의 군대로 강화발전시켜오신 위대한 장군님을 천만군민의 한마음담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였던 1990년대 그날의 열광의 화폭도 어려온다.

두해전 오늘에도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력사의 그날들처럼 감격에 넘쳐 환호성을 터치였다.

가슴이 넓어지고 마음이 든든하다. 온몸에 억센 힘이 용솟음친다. 승리의 신심이 넘친다. …

그날의 격동에 찬 목소리들이 지금도 들려오는듯.

우리 인민군대는 과연 어떤분을 최고수위에 높이 모시였는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

그이는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들이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담력과 배짱을 그대로 닮으신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시다.

지난해의 첫아침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찍으신 첫걸음에 대하여 세계 여러 나라 통신, 방송들은 앞을 다투어 보도하였다.

《김정은령도자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서거후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시찰하시면서 군인들을 향해 미소를 지으시며 박수도 쳐주시였고 지휘관들을 가까이 끌어당기시며 귀가에 대고 가르침도 주시였다. 김정은령도자는 군부대시찰의 바쁜 일정속에서도 병사들의 잠자리를 돌아보시였고 지어는 수도꼭지들도 검사해보시며 물이 제대로 나오는가를 알아보시였다.

김정은령도자의 땅크부대시찰은 이 나라의 새 령도자가 김정일국방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고수할것이라는 명백한 메쎄지를 전하는 동시에 김정은령도자의 사업방식을 시사해준다.》

서방의 어느 한 통신이 이렇게 전한것처럼 위대한 장군님의 불멸의 발자취가 깃들어있는 땅크부대에 대한 력사적인 현지시찰은 조선을 변함없이 선군의 길로 이끄시려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철의 신념과 의지의 선언이였다.

그 신념과 의지를 안으시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선군의 드팀없는 보폭으로 조국수호, 사회주의수호의 길을 걸으시며 백두산장군의 기상과 위용을 만방에 떨치시였다.

우리의 자주권이 행사되는 수역 또는 지역에 단 한발의 포탄이 떨어져도 지체없이 섬멸적인 반타격을 가함으로써 천금을 주고도 살수 없는 기회를 절대로 놓치지 말라!

일촉즉발의 팽배한 공기가 흐르는 서남전선의 최남단 최대열점지역에 위치한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시면서 내리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단호한 이 명령, 백두산호랑이의 노성과도 같은 불호령에 원쑤들은 혼비백산하였고 세계는 찬탄의 목소리를 높이였다.

세계군력사에는 자기 나라 군대와 인민은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의 주목을 끌고 이름을 날린 군령수, 최고사령관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처럼 그렇듯 짧은 기간에 세인의 경탄과 이목을 집중시킨 위인은 있어본적 없다.

세상을 놀래우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비범한 천품은 백전백승의 담력, 령활한 군사전법과 같은 천출명장의 기상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이렇게 조용히 불러보느라면 일당백용사의 무쇠가슴에도 뜨거운것이 맺힌다는 병사들의 심장의 고백이 있다.

어찌하여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그렇듯 흠모하며 따르는가.

지난 10월 어느 한 해군부대의 군인들이 전투임무수행중에 희생되였을 때 해군용사들모두는 나의 전우, 동지들이라고, 내 가슴도 이렇게 아픈데 사랑하는 자식과 남편을 잃은 가족들의 가슴은 얼마나 아프겠는가고 하시며 희생된 해군용사들의 시신을 마지막 한사람까지 모두 찾아내여 부대주둔지역의 좋은 자리에 잘 안장하도록 하신 경애하는 원수님,

전사한 지휘관들과 해병들의 사진 한장한장에 온갖 심혈을 다하시여 해군용사들의 돌사진을 훌륭히 완성시켜주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여 묘비에는 묘주의 이름이 있어야지, 이 동무들의 묘주는 내가 되겠소, 묘비에 나의 이름을 써넣으시오, 묘주의 이름까지 써놓아야 마음이 조금이나마 풀릴것 같소라고 절절히 말씀하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

세상에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숭고한 전우애, 동지애의 감동깊은 화폭에 동해의 날바다도 격랑쳐 설레였다.

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인가.

살아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와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혁명의 길, 승리의 길을 꿋꿋이 가며 설사 그 길에서 쓰러진다고 해도 한없이 위대하고 자애로운 그이의 품속에서 영생을 누리는것이 우리 병사들이다.

삶도 미래도 다 맡아 안아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 우리 인민군장병들의 영광과 행복 끝이 없다.

혁명군대의 영광!

그 영광, 그 행복으로 병사들의 심장 뜨겁게 불탄다. 백승의 기치 높이 휘날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결사옹위의 성새, 사회주의수호의 성새를 철벽으로 다진다.

절세의 위인을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무적의 대오, 혁명적무장력을 가진 우리 조국, 우리 인민은 언제나 백전백승하리라.

그렇다.

혁명군대의 영광은 선군조선의 영광이다.

조국의 영광, 인민의 영광인 혁명군대의 영광이여, 영원토록 무궁하라.

본사기자 허 명 숙

비약의 폭풍을 안아온 단숨에의 기상

인민군군인들은 노래 《단숨에》를 사랑한다.

위훈 세워도 단숨에 승리 떨쳐도 단숨에 번개같이 불이 번쩍 단숨에!

이 노래를 부르며 우리 인민군군인들은 조국의 방방곡곡에서 세계를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과 수령을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당의 지시라면 불불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관철하고야마는 인민군대를 가지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가장 큰 영광이며 자랑입니다.》

오늘날 인민군군인들의 단숨에기상이 가장 높이 빛나게 떨쳐지는 대고조전구는 마식령스키장건설장이다.

울창한 산발들을 꿰지르며 뻗어간 스키주로들이며 호텔과 봉사 및 숙소건물들, 직승기착륙장과 야외스케트장, 지하주차장…

이 마식령스키장건설장에서는 그 어떤 물음도 설명도 필요없었다. 화약에 불이 달린것처럼 내달은 군인건설자들의 투쟁열기가 모든것을 설명해주었다.

《200%는 성차지 않다!》, 《오늘뒤에는 오늘이 없다!》, 《3일보다 긴 하루!》, 《〈마식령속도〉창조에서 다시한번 단숨에 부대의 본때를!》…

건설장의 곳곳에 나붙은 이 힘있는 글발들은 동에 번쩍, 서에 번쩍 조국의 천리방선을 주름잡으시며 현지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보폭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흐르는 분과 초를 전선시간으로 만든 병사들의 단숨에기상을 력사에 전하고있다.

《마식령속도》창조!

이 경이적이고도 눈부신 기적은 어디서나 이룩되였다.

세계적수준의 종합적인 시설을 갖춘 문수물놀이장과 미림승마구락부, 초고층의 쌍기둥을 이루며 현대적으로 건설된 김일성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세상에 대고 자랑할만 한 류경구강병원…

건설장들마다 힘차게 나래친 글발들이 우리 가슴에 뜨겁게 되새겨진다.

폭풍치라, 총공격, 대혁신, 대비약…

이것이 단지 말과 글이였던가.

그것은 단순히 글발이기 전에 병사들의 삶이고 투쟁이며 실천이였다.

8월25일수산사업소 로동계급은 결사관철의 일념을 안고 6개월만에 4 000여t의 물고기를 잡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충정의 보고를 삼가 드리였다.

목표를 점령하기 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고 하며 단 몇달만에 물고기대풍을 기어이 안아오고야만 8월25일수산사업소의 로동계급이였다.

례년에 없는 물고기대풍을 안아온 동해의 새 기적, 정녕 그것은 인민군군인들의 결사관철의 정신, 일당백속도를 체현한 그들의 단숨에기상이 낳은 고귀한 결실이였다.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창조의 전투장마다에 나붓긴 단숨에 정신, 단숨에기상은 경제건설의 주요전구들에서도 불길마냥 세차게 타올랐다.

온 나라가 단숨에 내달리고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단숨에의 정신으로 일하고있다.

바로 그 기상과 위력으로 천만군민은 강성국가의 령마루에 단숨에 올라설것이다.

신 현 규

우리 군대만이 발휘할수 있는 소행

항일의 나날로부터 세기를 이어 발휘되여온 우리 혁명군대의 원민기풍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오늘 더욱 남김없이 발휘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군대에서는 인민을 돕자는 구호를 계속 높이 들고 인민을 사랑하고 존경하며 인민을 위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 군민대단결을 실현하는데서 주동이 되여야 합니다.》

시대의 기념비적건축물로 일떠선 은하과학자거리에서 새집들이를 앞두고 군인건설자들은 깊은 감회속에 자기들이 건설한 살림집을 돌아보았다.

여러칸의 훌륭한 살림방이며 현대적인 가구들…

기쁨에 넘치였던 군인들의 눈길이 부뚜막에 가멎었다.

새 살림집의 주인들이 오면 곧 불을 지피게 될 작은 부뚜막, 거기서 솟구쳐오를 행복의 불길을 자기들의 손으로 지펴주고싶은 마음으로 군인들은 부뚜막에 성냥을 놓아줄것을 발기하였다.

그리하여 집집의 부뚜막들에 군인들의 뜨거운 진정이 담긴 성냥이 놓이였다. 무동력보이라가 설치된 베란다마다에는 구멍탄과 불쏘시개감들이 마련되게 되였다. 방비며 밀대, 휴지통, 위생종이, 바께쯔, 물바가지를 비롯한 세부적인 생활필수품까지 놓아준 군인들도 있다.

이 사실을 아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우리 인민군대만이 발휘할수 있는 훌륭한 소행이라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감격적인 새집들이를 한 날 과학자들과 그 안해들은 인민군군인들이 마련해준 성냥과 불쏘시개감으로 새 집부뚜막의 불을 지피며 인민들의 행복의 불씨가 되려는 군인들의 뜨거운 마음에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인민군군인들이 마련해준 행복의 불씨!

그것은 단순히 새집들이하는 집에 성냥을 가지고간다는 우리 인민의 오랜 풍속에서만 시작된것이 아니다.

인민을 위해 모든것을 다 바치려는 인민군군인들의 뜨거운 마음과 지성이 어디서나 인민들의 행복의 불씨가 되고있다.

수도의 곳곳에 꾸려진 문화적인 공원과 휴식터들에서도 인민들은 자기들을 위해 진정을 다하는 군인건설자들의 열렬한 원민의 정을 절감하고있다.

훌륭한 문화휴식터를 마련해주고도 실금이 가고 흠집이 생길세라 제때에 달려와 불이 번쩍나게 보수해주는 군인건설자들의 아름다운 원민기풍은 류경공원, 장충공원만이 아닌 수많은 공원들에 비껴있다.

인민군군인들에 의하여 단 며칠사이에 산뜻하게 변모된 공원에 들어서던 장충공원의 관리원들은 군인들이 남겨두고간 자재들을 마주하게 되였다. 여러가지 색갈의 칠감을 비롯하여 공원관리와 보수에 필요한것들이였다.

공원을 손색없이 보수해놓고도 모자라 앞으로 쓸 자재까지 마련해준 인민군군인들,

세상에 이런 군대는 없다.

인민군군인들이 꾸려준 새 살림집들과 새 공원들에서 인민들의 행복의 웃음소리 넘쳐난다.

커가는 인민의 웃음소리, 그것은 원민기풍을 생명처럼 여기는 우리 인민군대가 행복의 불씨로 지펴준것이다.

본사기자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을 안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사회에서는 누구나 다 동지적의리를 지켜 서로 믿고 사랑하며 동지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기고 동지를 위하여 헌신하여야 합니다.》

평양시 강동군 속추로동자구 30인민반 최경심동무의 가정은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을 안고 황주군 읍 156인민반에서 사는 특류영예군인 김광일동무의 생활을 친혈육의 정으로 돌봐주고있다.

비록 사는 곳은 멀리 떨어져있어도 최경심동무는 편지를 통하여 김광일동무가 신심을 잃지 않고 락천적으로 생활하도록 고무해주면서 성의껏 마련한 보약과 생활용품들을 그의 가정에 보내주군 하였다.

최경심동무는 해마다 휴가를 받게 되면 어김없이 영예군인의 집을 찾아가 그의 건강상태도 알아보고 필요한 대책도 세우면서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언제인가 영예군인이 몹시 앓는다는것을 알고는 먼길을 한달음에 달려가 며칠밤을 지새우며 간호해주기도 하였다.

영예군인을 위해 마음쓰는 최경심동무를 도와 그의 남편과 시어머니도 자기들의 성의를 합치였다.

최경심동무의 시어머니는 나이가 많은 몸이지만 산에 올라 약초를 캐서 보약을 만들어 아들과 며느리의 손에 들려보내군 하였다.

최경심동무와 그의 가정의 지극한 마음에 떠받들려 김광일동무의 건강은 나날이 좋아지게 되였다.

최경심동무와 그의 가정의 뜨거운 지성을 대할 때마다 김광일동무는 병사시절의 그 기백으로 혁명의 꽃을 아름답게 피워갈 결의를 굳게 다지군 한다.

뜨거운 동지적의리심을 안고 조국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친 영예군인들을 친혈육의 심정으로 돌봐주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 우리 사회에는 아름다운 생활의 향기가 넘쳐나고있는것이다.

본사기자 리 건 일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작별방문

김영수 네팔주재 우리 나라 특명전권대사가 25일 뿌슈빠까말 다할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중앙위원회 위원장을 작별방문하였다.

석상에서 대사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뿌슈빠 까말 다할위원장에게 보내시는 인사를 전하였다.**

위원장은 이에 깊은 사의를 표시하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자신과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바디) 지도부 그리고 네팔인민이 드리는 축원의 인사를 전하여드릴것을 대사에게 부탁하였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제국주의련합세력과 당당히 맞서나가면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을 다그치는 조선은 네팔인민과 진보적인류의 존경과 선망의 대상으로 되고있다.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는 조선인민의 정신력과 조선에서 이룩되고있는 성과들에서 우리는 많은것을 배우며 신심과 용기를 얻고있다.

통일된 네팔공산당(마오바디)과 네팔인민은 강성국가건설과 조국통일을 위한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낸다.

【조선중앙통신】

당의 의도를 이들처럼 진심으로 받들자

연안군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지난해 12월 연안군당위원회 책임비서로 임명된 오현일동무는 군의 실태를 료해하던 과정에 이상기후현상이 군의 농업생산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있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어쩔수 없는것으로 여기고있는 일군들의 자세와 립장이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당조직들은 당의 농업혁명방침을 튼튼히 틀어쥐고 그 관철을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

나라의 농업생산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 연백지구의 알곡생산을 늘이는데서 농업기상예보의 신속정확성, 과학성을 보장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군당책임일군은 해당 기관과의 련계밑에 연백지구의 협동농장들에 기상예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군농업기상예보소를 내올 결심을 내리였다. 연백지구가 나라의 알곡생산을 늘이기 위한 사업에서 차지하는 위치의 중요성을 제때에 포착하고 내린 옳은 선택이였다.

주목되는것은 이 사업을 몇몇 개별적일군들의 사업이 아니라 군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틀어쥐고 내민것이다.

우선 작전부터 치밀하게 하였다.

예보소건설을 위한 강력한 건설휘력량을 꾸리고 돌격대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가 주최가 되고 당적으로는 군당위원회 비서 윤영길동무가 책임자로 임명되였다.

착공의 첫삽을 박던 그날 현지에서 열린 협의회에서 군당책임일군은 말하였다.

《동무들도 알다싶이 연백지구에서 농사를 보다 안전하게 짓고 알곡생산을 늘이자면 하루빨리 농업기상예보소를 꾸려야 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일군들은 자신의 실천력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군당책임일군의 호소는 일군들을 각성시켰고 분발시켰다.

군당위원회는 돌격대원들에게 공사과제를 주고 총화하는 식으로 일하지 않았다.

하나부터 열까지 전적으로 책임지는 립장에서 도와주었다.

군당책임일군의 사업기풍이 주목된다.

돌격대의 한 성원이 된 그는 건설장에 이틀이 멀다 하게 찾아와 제기되는 문제가 무엇인가를 알아보고 걸린 문제를 풀기 위한 현장협의회를 수시로 조직하였다.

예보소건물건설에 필요한 설비들과 중요한 자재들을 자신이 직접 맡아 해결해주었다. 이것은 일군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었다.

군당위원회 집행위원회 위원들은 물론 군당위원회와 군인민위원회,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의 일군들이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콤퓨터와 발동발전기, 변압기를 비롯하여 예보소에 필요한 설비들뿐만아니라 예보소성원들의 사업조건과 생활조건을 일식으로 갖추어주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게 되였다.

군에서 농업기상예보소를 꾸린다는 소식을 듣고 기상수문국 일군들도 휴대용콤퓨터와 현대적인 전광판, 자동우량계를 보내주었다.

돌격대원들과의 사업을 마음과의 사업으로 전환시켜 그들의 정신력이 예보소건설에서 남김없이 발휘되게 한것은 주목되는 문제의 하나이다.

실례가 있다.

건물벽체미장작업이 한창이던 어느날 건설장을 찾았던 군당책임일군은 한 돌격대원의 얼굴빛을 보고 그의 몸상태가 좋지 못하다는것을 알게 되였다.

자기 한몸은 돌보지 않고 예보소건물건설을 앞당기기 위해 애쓰고있는 그가 하루빨리 건강을 회복하도록 도와주어야겠다고 생각한 그는 가정에서 영양식품을 만들어 그 돌격대원에게 가져다주었다. 이틀이 멀다 하게 건설장에 찾아와 돌격대원들을 고무해주고 본인도 미처 몰랐던 건강문제까지 관심해주는 당일군의 뜨거운 진정은 그만이 아닌 돌격대원들의 정신력을 최대로 분출시켰다.

책임비서의 뒤를 따라 군협동농장경영위원회 위원장 홍명일동무도 돌격대원들을 물심량면으로 도와나섰다.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석달후에는 2층으로 된 군농업기상예보소건물이 일떠섰다.

군농업기상예보소가 꾸려지니 좋은 점이 많았다.

기상수문국과의 긴밀한 련계밑에 기상예보사업에 필요한 자료를 수시로 받아 농업기상예보와 관측에서 신속정확성과 과학성을 담보할수 있게 되였다.

이곳 예보소에서 연백지구의 군들과 농장들에 알려주는 매일의 날씨와 주간에 예견되는 날씨, 앞으로 예견되는 농업기상조건과 관련된 자료들은 농업부문 일군들이 농사지도를 적기적작의 원칙에서 과학적으로 할수 있게 하는데 큰 도움을 주고있다. 특히 올해 모내기철과 가을철에 연백지구의 군들과 농장들에서는 이곳 예보소의 도움을 받아 있을수 있는 피해로부터 농작물을 보호하였다.

읍지구의 중심에는 날씨를 알려주는 전광판도 설치하여 주민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데도 도움을 주고있다.

지난 11월 군농업기상예보소건물과 기상관측장을 표준화한 연안군농업기상예보소에 대한 전국적인 보여주기사업이 진행되였다. 예보실과 통보실, 청년학교, 소장방, 자료보관실, 관측실과 기상관측장 등 예보소의 이모저모를 돌아본 참관자들의 반향이 대단히 좋았다.

기상수문부문을 중시하고 이 부문사업을 진심으로 도와준 이곳 군당위원회의 사업기풍은 당의 의도를 어떤 자세와 립장에서 받들어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로 된다.

본사기자 손 영 희

탁월한 선군령장을 모시여 빛나는 민족의 존엄

백두산위인들의 숭고한 애국의 뜻과 의지가 어린 선군혁명위업은 탁월한 선군령장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이 모시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 우리 혁명을 줄기차게 이끌어나가는 선군정치는 백승의 기치로서 해내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지지를 받고있다.

말로써 지킬수 없는것이 민족의 존엄이고 구걸로는 이룰수 없는것이 평화라는것을 실생활로 체험하고있는 남녘겨레들은 지금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굳건히 수호해주고 평화와 통일의 앞길을 열어나가는 우리 공화국의 선군정치를 이렇게 한목소리로 찬양하고있다.

《세계최강의 선군정치! 그것은 우리 민족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의 보검이며 이 땅의 평화를 지키고 민족의 존엄과 생존을 담보해주는 강력한 힘이다.》

《선군정치로 위력떨치는 이북은 강력한 자주의 성새, 평화수호의 보루, 인류의 미래이다.》…

서울에서 사는 자주학회의 한 회원은 어느 한 토론회에서 《오늘 조선반도의 평화는 북의 선군정치에 의하여 지켜지고있다. 선군정치의 힘은 예속을 이기는 자주의 힘이고 전쟁을 이기는 평화의 힘이며 통일의 힘이다.》라고 격찬하였다.

이북바로알기회 회원은 자기의 글에서 《선군정치는 이북만이 아니라 이남민중도 포함한 온 겨레의 생존을 지켜주고 민족의 미래를 담보하는 애국애족의 정치, 평화의 보검》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우리 민중모두가 복잡다단한 정세속에서도 이렇게 편히 살고있는것은 다 선군정치때문이다. 지금 각계 민중은 실체험을 통해 선군정치야말로 우리 이남민중을 보호해주고 민족의 운명을 지켜주는 애국애족의 정치임을 절감하고있다.》

대구의 한 종교인은 자기가 평생 교리를 믿으며 바라온것은 바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땅에서 사는것이였는데 그것이 바로 선군정치에 의해 비로소 풀리게 되였다고 하면서 《막강한 국력으로 지켜지고 떨쳐지는 이북의 존엄은 황금으로도 살수 없고 원자탄으로도 없앨수 없는 그리고 그 어느 민족의 자랑과도 비교할수 없는 인류최대의 존엄이다. 그 어떤 압력에도 흔들리지 않는 강경한 자세로 하여 존엄수호의 신비경을 펼쳐보이고있는 이북은 그야말로 존엄의 왕국이다.》라고 찬탄을 금치 못하였다.

21세기정치학연구모임의 한 교수는 글에서 《선군의 위력은 이남민중에게 남북이 손잡으면 능히 민족자체의 힘으로 평화를 지키고 통일을 이룰수 있다는 신심을 안겨주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다.

《자랑스럽도다 평화의 방패. 죽고 죽이는 혈전, 마스고 불태우는 칼과 불의 대결, 그것을 막아주는 이북의 선군정치는 우리 민중에게 평화의 봄빛을 비쳐준다. 그래서 나는 선군정치가 안아온 은덕을 〈선군복〉이라 부른다.》

새력사연구회의 한 회원은 《선군정치는 결코 특수한 정황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정치방식이 아니라 작은 나라일수록 더 높이 들어야 하고 제국주의, 지배주의가 있는 한 결단코 내리우지 말아야 할 영원한 기치이다.》라고 주장하였다.

언제인가 남조선의 한 재야인사는 모임에서 《민족의 존엄과 영예가 빛난다는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국력이 비상히 강화되여 민족의 존엄과 영예를 누구도 감히 건드릴수 없게 되였다는것을 의미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계속하였다.

《국력이 강한가 약한가 하는것을 결정하는데는 물론 여러가지 요인들이 있을수 있다고 본다. 하지만 강한 국력의 첫째가는 징표는 강한 군사를 가지는것이며 그것은 탁월하고 세련된 령군술과 지략을 지닌 절세의 위인을 모실 때에만 가능한것이다. 위인중의 위인이시며 장군중의 장군이신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령도로 이북의 인민군대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군대가 되였으며 오늘날 김정은제1위원장의 지휘하에 무적강군의 필승의 기상을 온 세상에 더욱 높이 떨치고있다.》

지금 남조선인민들은 백두에서 개척된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계시기에 민족의 존엄과 미래가 굳건히 담보되며 조국통일도 반드시 이룩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있다.

그들이 터치는 격정의 목소리들마다에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을 모신 조선민족의 긍지와 자랑이 력력히 어려있다.

《우리 민족은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모시여 대를 이어 수령복, 장군복을 누리고있다.》, 《만민은 김정은최고령도자의 모습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국방위원장을 뵈옵고있다.》, 《오늘 우리 민족의 중심에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계신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최고사령관의 선군정치가 있어 우리의 배심은 든든하다.》

…

참으로 백두의 담력과 배짱, 한없이 고매한 덕망을 지니시고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해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에 대한 남조선 각계층의 다함없는 존경과 위인흠모의 마음은 날이 갈수록 더욱더 높아가고있다.

남조선의 한 정치학교수는 평양에서 진행된 군중시위의 장엄한 모습을 록화물로 보면서 흥분된 자기의 심정을 이렇게 피력하였다.

《위인의 위업은 위인에 의해서만 확고히 계승된다고 하였다. 김정일령도자님의 선군혁명위업은 김정은최고사령관에 의해 훌륭히 계승되고있다. 세계는 그분의 위인적풍모를 목격하며 커다란 충격을 받고있다. 진정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저 하늘에서 지구우에 내려오신 또 한분의 불세출의 위인이시다. 세계정치무대에는 김일성시대, 김정일시대에 이어 김정은시대가 장엄히 펼쳐지고있다.》

남조선의 언론들도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에 매혹된 민심을 담은 글들을 계속 싣고있다.

《김정은제1위원장의 탁월한 사상리론적풍모와 높은 령도적자질에 경탄을 금할수 없다.

그분은 진정 온 세계가 김일성, 김정일조선을 우러러보게 하겠다는 배짱을 지니신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이시다.》, 《지금 세계의 관심은 김정은제1위원장께로 모아지고있다. 그분의 정치가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국방위원장님의 선군사상과 리념, 방법론에 기초하여 펼쳐지고있다는것이 내외평론가들의 일치한 견해이다.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이신 김정은최고사령관을 높이 모시여 조국통일위업의 완성은 확정적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위대한 선군태양으로, 조국통일의 구성으로 믿고 따르려는 남조선인민들의 신념과 의지는 확고부동하다.

하기에 남녘인민들은 자기들의 확신을 담아 이렇게 웨치고있다.

《위대한 령수가 위대한 단결을 낳는다. 마침내 하나로 통일될 겨레여, 온 세상에 자랑하시라. 21세기의 태양이 펼치는 위대한 민족단합의 하늘아래 그대들이 산다!》

라 영 국

생뚱같은 《도발》설에 깔린 흉계

요즘 남조선괴뢰들이 그 누구의 《도발》설을 또다시 요란스럽게 불어대기 시작했다. 며칠전 괴뢰집권자는 취임이후 처음으로 최전방일대의 괴뢰군초소에 나타나 《북이 도발할 우려가 크다.》느니, 《도발시 단호하고 철저히 대응하라.》느니 하고 기염을 토하였다. 그는 이보다 앞서 외교안보장관회의와 청와대수석비서관회의라는것들을 련이어 벌려놓고 《안보상황이 엄중》하다느니, 《북이 언제 도발할지 모른다.》느니 하고 부산을 떨면서 경계태세강화에 대해 피대를 돋구었다. 망둥이 뛰면 꼴뚜기도 뛴다고 괴뢰합동참모본부 의장, 해병대사령관을 비롯한 군부졸개들도 덩달아 군사분계선일대를 싸다니며 그 무슨 《국지도발》을 떠들고 《응징》이니, 《격퇴》니 하며 호전적광기를 부리였다. 이미 괴뢰국방부 장관 김관진역도는 다음해 1월하순부터 3월 초순까지 《북이 도발할 가능성》이 있다고 날자까지 찍으며 《북도발》설을 기정사실화한바 있다. 그에 이어 괴뢰집권자는 물론 군부깡패들이 잇달아 《도발》이니, 《응징》이니 하며 입에서 뱀이 나가는지 구렁이가 나가는지도 모르고 화약내풍기는 악담들을 마구 쏟아낸것이다. 그야말로 반공화국대결에 미칠대로 미친자들의 히스테리적광기가 아닐수 없다. 한마디로 말하여 그것은 저들에게 쏠린 여론의 이목을 딴데로 돌리고 위기에서 헤여나기 위한 하나의 서툰 광대극에 지나지 않는다.

알려진바와 같이 정보원선거개입사건의 진상이 낱낱이 드러나면서 현 괴뢰집권자의 퇴진을 요구하는 각계의 투쟁은 온 남조선을 휩쓸고있다. 이로 하여 보수패당은 극도의 정치적혼란과 통치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지난 1년간을 통하여 집권자의 선거공약이 권력야욕을 채우기 위한 파렴치한 거짓말들이라는것이 완전히 드러나 여론의 뭇매를 맞고있다. 파쑈독재통치와 근로대중의 생존권을 마구 짓밟는 반인민적악정은 각계의 반《정부》투쟁을 더욱 고조시키고있다. 궁지에 몰린 보수패당이 저들에게 반기를 든 모든 세력을 《종북》으로 몰아대며 각계의 규탄여론을 잠재우려 하지만 그런 오그랑수는 전혀 먹어들지 않고있다.

언제 《정권》의 자리에서 쫓겨날지 모를 다급한 처지에 놓인 남조선보수패당은 《북도발》설을 류포시키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날듯이 분주탕을 피워 민심의 주의를 안보문제로 돌리고 저들은 위기에서 빠져나가보려고 발악하고있다.

터놓고말해서 괴뢰들이 《북도발》설로 우리를 터무니없이 걸고드는것은 처음이 아니며 인민들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에 대해 신물을 느끼고있다. 그러니 새삼스레 아무리 《북도발》설을 떠들어야 이미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은 그 거짓말을 누가 곧이 듣겠는가.

입은 삐뚤어져도 주라는 바로 불라는 말이 있다. 괴뢰들이 왕청같이 《북도발》에 대해 요란히 떠들며 여론을 오도하는 기본목적은 사실상 동족을 반대하는 군사적대결소동을 일층 강화하자는데 있다. 력대적으로 괴뢰호전광들은 있지도 않는 그 누구의 《도발》을 운운하며 그 구실밑에 북침전쟁도발책동에 박차를 가해왔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그 수법을 고스란히 되풀이하고있다. 막다른 골목에 이른 괴뢰패당은 《도발대비》의 간판밑에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그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씌우는 방법으로 저들에게 불리한 형세를 역전시켜보려고 꾀하고있다. 결국 도발은 다름아닌 괴뢰호전광들이 하고있다.

문제는 괴뢰호전광들의 분별없는 망동이 자칫하면 북침전쟁도발로 이어질수 있다는것이다. 파멸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괴뢰패당이 최후의 발악으로 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달수 있다는것은 결코 가설이 아니다.

하지만 남조선호전광들에게 상기시킬것이 있다. 괴뢰들은 《도발대비》를 구실로 우리에게 날린 포탄 몇발때문에 무자비한 불소나기를 들쓴 연평도의 뼈저린 교훈을 잊지 말아야 한다.

우리 군대와 인민은 만일 적들이 단 한점의 불꽃이라도 날린다면 그것을 조국통일성전을 위한 절호의 기회로 삼고 도발자들을 형체도 없이 모조리 죽탕쳐버릴것이다. 괴뢰들은 도발의 대가가 얼마나 값비싼가 하는것을 똑똑히 알고 함부로 날뛰지 말아야 한다.

박 철 준

여지없이 드러난 파쑈폭군의 정체

철도로조파업에 대한 강경진압에 나선 남조선괴뢰당국이 로조핵심들을 체포할 기도밑에 며칠전 민주로총본부에 대한 강제수색을 벌리는 횡포무도한짓을 감행하였다. 파쑈광들은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를 떠들면서 수많은 경찰깡패들을 내몰아 최루액을 퍼붓고 건물을 들부시며 미쳐날뛰던 끝에 130여명을 공무집행방해혐의로 련행하였다. 현 괴뢰정권이 등장하여 처음으로 되는 이런 무지막지한 로조탄압책동은 보수패당의 파쑈적이며 반인민적인 정체를 낱낱이 폭로해준 경악스러운 야만행위이다. 이번에 괴뢰경찰이 수색령장도 없이 천하의 불망나니란동을 부린것으로 하여 지금 온 남조선이 분노의 도가니가 되여 끓어번지고있다.

괴뢰당국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철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을 《정치파업》, 《불법파업》으로 몰아대는것은 그야말로 파렴치스럽기 그지없다.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이 과연 무엇때문에 파업투쟁에 나섰겠는가. 《효률성제고》의 간판밑에 철도산업을 탐욕스러운 재벌들에게 통채로 내맡기는 보수당국의 철도민영화책동으로 그들에게 차례질것은 대량해고와 임금삭감밖에 없다. 더우기 남조선집권자는 사회적합의가 없는 민영화는 절대 하지 않겠다고 공약하였었다. 지금 보수패당이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는다고 떠들고있지만 한두명도 아닌 수많은 남조선철도로동자들과 각계 단체들이 그것도 가려보지 못하고 이 추운 동지달 언손을 녹이며 거리에 떨쳐나와 그렇듯 피타게 철도민영화반대를 웨치고있겠는가.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의 파업투쟁은 생존권사수를 위한 지극히 정당한 투쟁이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는 법이다. 자기들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압제자들을 반대하는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의 항거투쟁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불법일수 없다.

파쑈광들이 《법과 원칙에 따른 엄정대처》를 떠들었는데 족제비도 낯을 붉힐 수작이다. 그래 수색령장도 없이 합법적인 로조단체의 공공건물을 들부시고 사람잡이에 미쳐돌아가는 불법무법의 망동이 어떻게 《법과 원칙》에 따른 행동으로 될수 있겠는가. 오죽하였으면 괴뢰경찰내부에서 이번 사태를 두고 《애꿎은 일선경찰을 승진시켜준다고 꼬드겨 저지른 협잡극》, 《법원을 무시하고 망신만 당한 무리한 작전》이라는 비난이 터져나오고 국제대사령이 《국제기준위반》이라는 항의성명까지 냈겠는가. 파쑈폭군들이 운운한 《법과 원칙》이란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모든 세력에 《불법》, 지어 《종북》의 딱지를 붙여 모조리 탄압말살하려는 살인구호일뿐이다.

더우기 격분을 자아내는것은 보수패당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하는 남조선철도로동자들의 투쟁을 《제 밥통챙기기》로 모독해나선 비인간적처사이다. 이것이야말로 생존의 권리를 지키려는 인민들에 대한 참을수 없는 우롱이 아닐수 없다. 이것으로 근로인민대중의 머리우에 군림하여 독재와 폭압을 일삼으며 《정권》안보에 미쳐돌아가는 현 괴뢰집권세력의 반인민적정체는 다시금 여지없이 드러났다.

민주로총본부에 대한 경찰깡패들의 강제수색이 실패로 끝난 다음날 괴뢰집권자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철도로조파업에 대해 또다시 《원칙에 따른 강경대응》을 운운한것은 단순한 분풀이가 아니다. 거기에는 이번 기회에 보수당국에 항거해나선 로동자들의 투쟁을 완전히 짓뭉개버림으로써 남조선전역에서 고조되고있는 반《정부》기운을 거세말살해버리려는 흉악한 속심이 깔려있다. 이번 사태를 수수방관할 경우 남조선에서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위한 투쟁마저 완전히 봉쇄되고 인민들은 독재세력의 전횡으로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렵게 될것이다. 문제의 심각성은 바로 여기에 있다.

지금 남조선에서 민주로총과 전국교수로동조합을 비롯한 각계 로조단체들이 《박근혜정권 퇴진》구호를 들고 철도로조의 파업투쟁에 적극 합세해나서고있는것은 보수당국의 파쑈적폭거를 결단코 짓부시고 민주주의와 생존권을 기어이 쟁취하려는 격노한 민심의 반영이다.

생존의 권리는 오직 굴함없는 투쟁으로써만 쟁취할수 있다. 파쑈당국의 야수적폭압에 맞서 굴함없이 싸우고있는 남조선철도로조와 각계층 인민들의 대중적투쟁은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리 효 진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

지금 남조선의 괴뢰보수패당은 삶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에 떨쳐나선 민주로총과 철도로동자들을 야수적으로 탄압하는 귀축같은 만행을 저지르고있다.

괴뢰역적패당은 철도민영화반대투쟁에 참가한 수천명의 철도로동자들을 집단적으로 해고한데 이어 지난 22일에는 5 000여명의 무장악당들을 민주로총본부에 진입시켜 항거하는 로동자들에게 야만적인 폭행을 가하다 못해 130여명을 강제련행하였다.

괴뢰무장경찰은 함마로 청사출입문을 까고 무고한 로동자들을 무참히 구타하면서 사무실들과 복도, 계단을 비롯한 민주로총본부건물을 참혹한 전쟁의 포화를 겪은 페허처럼 만들었다.

뿐만아니라 경찰폭압무력을 총동원하여 남조선 전지역을 샅샅이 뒤지며 철도민영화를 반대해나선 철도로동조합 지도부성원들을 검거하기 위한 일대 수색검거선풍을 일으키는 망동을 부렸다.

괴뢰역적패당의 무지막지하고 잔인한 파쑈적폭거는 선행군부 파쑈독재자들도 낯을 붉힐 천추에 용납 못할 반민주적, 반인권적범죄로서 온 민족의 치솟는 증오와 격분을 자아내고있다.

이번 괴뢰패당의 망동은 단지 민주로총과 철도로동자들에게만 국한된것이 아니라 박근혜《정권》의 반인민적악정에 항거해나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을 총칼로 억누르겠다는 공공연한 선전포고이다.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는 남조선의 민주로총과 철도로동자들에 대한 괴뢰역적패당의 파쑈탄압만행을 근로대중의 초보적인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마저 무참히 짓밟는 천인공노할 야만행위로, 온 겨레의 정의로운 지향과 요구에 대한 전면도전으로 락인하면서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의 이름으로 이를 준렬히 단죄규탄한다.

괴뢰보수정권의 반인민적, 반민주적악정에 대한 근로대중의 원성은 하늘에 닿았다.

온갖 부정협잡과 강권으로 《정권》을 강탈하고 반인민적악정만을 일삼으며 살벌한 공안통치로 악몽같은 《유신》파쑈독재를 되살리려고 발악하는 파쑈역적배들을 그대로 두고서는 하루도 마음편히 살아갈수 없다는것이 남조선근로대중이 내린 박근혜집권 한해의 총화이다.

삶의 터전인 농토를 황폐화시키고 생존의 근본인 농업을 파괴하였을뿐아니라 남조선쌀시장을 외래독점자본에 송두리채 내맡긴 괴뢰보수패당의 악정에 분노하여 남조선의 농민들도 항쟁의 거리에 나섰다.

온 남조선천지가 《박근혜퇴진》, 《민주화와 생존권보장》, 《정보원해체》, 《〈유신〉독재부활반대》투쟁의 웨침으로 진동하고있으며 격노한 민심의 초불은 더 세차게 타오르고있다.

극도의 위기에 몰리운 괴뢰집권패당이 근로대중에 대한 총칼탄압으로 출로를 찾으려 하고있지만 그것은 부질없는 망상이다.

근로대중의 정의로운 지향과 요구는 총칼로 억누를수 없다.

민심과 대세에 역행하는 파쑈독재자는 력사의 준엄한 심판을 결코 면할수 없다.

생존권을 위해 결사항전에 나선 남조선의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은 반드시 파쑈독재통치를 짓부시고 민주화된 새 사회를 안아오고야말것이다.

공화국북반부의 전체 농업근로자들은 생존권사수와 민주화실현을 위하여 일떠선 남녘의 로동자, 농민들을 비롯한 광범한 근로대중의 정의의 투쟁을 언제나 적극 지지성원할것이다.

주체102(2013)년 12월 29일
평 양

청년들에게 고통을 들씌우는 당국을 규탄

남조선의 인터네트신문 《민중의 소리》가 26일 청년실업문제해결을 외면하는 괴뢰패당을 규탄하는 사설을 실었다.

사설은 박근혜가 집권초기에 청년들의 일자리문제를 《정부》의 주요국정과제로 선정할것이라고 공언하였지만 한 일이란 시간제일자리를 들고나온것뿐이라고 비난하였다.

시간제일자리는 청년들에게 낮은 임금과 비정규직을 강요하는것이라고 단죄하였다. 지금 대학생들은 현 《정권》에 대한 분노와 절규를 안고 투쟁의 거리에 떨쳐나서고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속에 박근혜가 또다시 청와대에서 청년들의 일자리문제해결이 최우선과제라고 고아댔다고 하면서 더이상 그 말에 속을 청년들은 없다고 주장하였다.

청년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청년들이 모든 사람들과 함께 힘찬 투쟁을 벌려야 한다고 사설은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민주로총소속 로조원 10만명
총 파 업 전 개

【평양 12월 29일발 조선중앙통신】 남조선《MBC》방송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로총이 28일 철도로조의 투쟁을 지지하여 총파업을 전개하였다.

총파업에 앞서 단체는 서울광장에서 소속로조원 10만명이 참가한 가운데 결의집회를 가졌다.

집회에서 발언자들은 《정부》가 철도로조와 대화하기는커녕 민주로총본부에 강제진입하여 무지막지한 탄압소동을 벌리는 등 파쑈적폭압으로 일관하고있다고 단죄하였다.

민주로총은 이날부터 《정부》와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고 민영화저지를 위한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선언하였다.

한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교직원로동조합 등 시민, 로동단체들은 서울 각곳에서 집회를 가지고 당국의 철도민영화를 강력히 반대하였다.

요구하는 해외동포들
괴뢰집권자의 퇴진을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차게 전진
안주뽐프공장에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사회주의증산경쟁을 힘있게 벌려 생산을 활성화하고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합니다.》

지난 11월말까지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넘쳐 수행한 안주뽐프공장의 로동계급이 이달에 들어와서도 계속 힘찬 돌격전을 벌려 26일까지 맡겨진 뽐프생산과제를 지표별로 완수하는 자랑찬 위훈을 창조하였다.

경제강국건설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자신들이 지닌 임무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한 공장의 일군들은 뜻깊은 올해 더 높은 생산성과를 이룩할 목표밑에 잡도리를 단단히 하고 달라붙었다.

당, 행정일군들사이의 련합이 강화되는 속에 모든 일군들이 직장, 작업반들을 맡고 현장에 내려가 작전과 지휘를 참신하게 벌려나갔다. 특히 대중의 창조적열의를 적극 불러일으켜 생산에서 걸린 문제들을 푸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내부예비를 최대한 탐구동원하여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기 위한 사업이 힘있게 벌어졌다.

공장의 일군들은 원료, 자재보장을 맡은 단위들과의 련계를 강화하는것과 함께 황해남도를 비롯한 여러곳에 나가 못쓰게 된 설비들을 회수리용하기 위한 사업을 실속있게 짜고들었다.

일터마다 사회주의경쟁열풍이 세차게 휘몰아치는 속에 종업원들이 생산의 주인이라는 자각안고 이 사업에 적극 떨쳐나섬으로써 공장주변에서만도 많은 원료, 자재예비를 찾아냈다.

증산의 중요한 예비를 사회주의경쟁을 더욱 심화시키는데서 찾은 공장의 일군들은 이 사업을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갔다.

절삭경기를 비롯한 각종 형태의 사회주의경쟁을 널리 조직하는것과 함께 경쟁요강을 세밀하게 작성하는데 큰 품을 넣었다. 공장의 일군들은 10월에 들어서면서 뽐프생산에서 중요한 몫을 담당하고있는 주물직장과 가공직장의 하루생산목표를 더 높이 내세우고 그에 따르는 평가사업을 따라세움으로써 이전시기에 비해 주물품생산과 가공속도를 1.3배이상 높이였다.

과학기술의 힘으로 생산적앙양의 돌파구를 열기 위한 사업이 적극 추진되였다.

올해에 들어와 자체의 힘으로 선진기술이 도입된 열풍식소둔로를 새로 일떠세움으로써 종전에 비해 소둔시간은 1/2, 연료소비는 1/3로 줄이면서도 제품의 실수률을 높이였다. 주물직장과 가공직장의 로동자, 기술자들은 여러건의 새 기술혁신안들과 각종 지구들을 생산에 도입하여 주물품의 질과 가공속도를 높임으로써 공장이 년간 뽐프생산계획을 앞당겨 완수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계획수행기간 공장에서는 여러개의 단로기들을 제작도입한데 기초하여 교차생산조직을 실정에 맞게 더욱 짜고들었다. 그리하여 주물, 가공, 조립 등 전반적인 공정들에서 단위시간당 생산성이 훨씬 높아졌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맡겨진 년간 뽐프생산계획을 빛나게 완수한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앙양된 기세를 늦추지 않고 《마식령속도》창조의 기상을 남김없이 과시하며 더 높은 목표를 향하여 힘찬 돌격전을 들이대고있다.

본사기자 류 성 국

값 높 은 삶 의 자 욱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지금 우리 인민은 선군정치를 높이 받들고 인민군대를 친혈육과 같이 사랑하고 진심으로 도와주고있습니다.》

선군으로 존엄높은 이 땅에 원군미풍이 더욱 활짝 꽃펴났다.

선군의 총대우에 조국의 밝은 미래가 있음을 심장에 새긴 우리 인민은 조국보위도 사회주의건설도 우리가 다 맡자는 구호를 높이 들고 시대의 기념비적창조물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투쟁에서 날마다 기적과 위훈을 창조해가는 인민군군인들을 원호하는 사업을 최대의 애국으로 여기며 뜨거운 마음과 지성을 다 바쳐왔다.

연평도포격전에 대한 소식을 듣자마자 전선의 자식들을 생각하는 어머니의 마음으로 성의껏 마련한 수많은 원호물자를 안고 전연초소의 병사들을 찾아간 평양안경상점의 종업원들이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의 병사들을 위해서는 아까울것이 없다고 하면서 군인들을 위한 좋은 일을 적극 찾아한 평성시 두무2동의 일군들과 주민들, 심산오지에서 사는 평범한 녀성이지만 병사를 위해 바친 불같은 헌신으로 하여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아시는 병사의 어머니가 된 정선영녀성…

얼마나 많은 일군들과 근로자들, 가정들이 초소의 군인들로부터 우리 아버지, 원군어머니, 원군집으로 정답게 불리워왔던가.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를 지켜섰다는 선군시대 공민의 애국의 열의가 이 땅 그 어디서나 뜨겁게 불타오르고있다. 인민군대가 있어야 우리의 행복도 있다고 하며 강령땅의 인민들이 펼친 감동깊은 화폭은 선군시대와 더불어 더욱더 뜨겁게 달아오르는 내 조국의 원군의 숨결을 가슴한껏 안아보게 한다.

만사람의 감동을 자아내며 나날이 꽃펴난 원군미풍들은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받들어나가는 길에 우리의 운명도 미래도 있다는것을 가슴깊이 새기고 모든것을 바쳐가는 우리 인민의 고상한 사상감정의 발현이다.

선군시대와 더불어 앞으로도 우리 인민의 원군길에는 값높은 삶의 자욱들이 무수히 수놓아지게 될것이다.

본사기자

애 국 에 사 는 순 결 한 마 음
신의주시 청송동에 사는 김명실동무의 가정에서

우리 사회에는 순결한 애국의 마음을 안고 좋은 일을 스스로 찾아하는 사람들이 많다.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삶의 참된 보람을 찾는 사람들속에는 신의주시 청송동 8인민반에서 살고있는 류운호, 김명실부부도 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익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지난 10월 어느날 저녁이였다.

텔레비죤화면을 통하여 당의 웅대한 구상에 따라 대규모축산기지로 전변되고있는 세포등판에 대한 소식에 접한 김명실동무의 생각은 깊었다.

지난해 제4차 전국어머니대회에 참가하여 경애하는 원수님을 모시고 기념사진을 찍던 그날의 영광을 되새길수록 당이 부르는 세포등판개간전투장에 달려나가 위훈의 자욱을 새겨가고있는 돌격대원들을 도와야 하겠다는 결심에서였다.

김명실동무의 말을 들은 남편인 류운호동무가 안해의 결심을 지지해주며 이렇게 말하였다.

《거 좋은 생각이요. 우리 온가족이 세포등판개간전투에 참가한 돌격대원이 된 심정으로 세포전역을 힘껏 도읍시다.》

그 말을 들은 맏아들 금성이는 물론 둘째, 셋째아들도 환성을 올렸다. 자기들도 세포등판에 펼쳐진 대규모축산기지들에 가보고싶다는것이였다.

막내아들 강성이가 손벽을 치며 한마디 하였다.

《아버지, 어머니가 인민군대아저씨들을 적극 원호하여 위대한 장군님께 기쁨을 드렸던것처럼 우리도 돌격대원아저씨들을 힘껏 도와 경애하는 원수님께 기쁨을 드리고싶어요.》

그러는 막내아들을 꼭 껴안아주며 김명실동무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기였다.

지난해 신의주시에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영생탑을 건립할 때 공사에 참가한 건설자들에게 많은 지원물자를 보내주던 일이며 세 아들과 함께 백두산선군청년발전소건설장에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보내던 나날이 가슴뜨겁게 되새겨졌다.

생각할수록 아들들이 장하게만 느껴졌다.

막내아들의 등을 가볍게 두드려주며 아버지가 한마디 하였다.

《우리 강성이 며칠전에 금수산태양궁전수목원에 50그루의 은행나무, 수삼나무와 1 000여뿌리의 도라지를 보내주었지.》

그리고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천세만세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원수님의 령도에 끝없이 충실할 때 우리 조국이 더욱 강해지고 온 나라에 행복의 웃음꽃이 더욱더 만발하게 된다고 다시금 이야기해주었다. …

그때로부터 며칠후 이들부부는 많은 지원물자를 성의껏 마련하여 세포등판개간전투에 떨쳐나선 돌격대원들에게 보내주었다.

본사기자

독자의 편지
원군길에 바쳐가는 뜨거운 지성

제가 이렇게 펜을 든것은 지난 여러해동안 누가 보건말건, 알아주건말건 묵묵히 원군길을 이어가고있는 룡천군 옵 28인민반 리태섭, 전옥빈로인들의 아름다운 소행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길에서 삶의 보람을 찾고있는 이들은 조국보위초소를 지켜선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성심성의를 다하고있습니다. 원군의 길에 가정의 운명도, 자신들의 행복한 생활도 있다는것을 깊이 자각한 이들은 인민군군인들과 한전호에선 심정으로 자신들이 마련한 많은 원호물자들을 초소의 병사들에게 보내주군 합니다.

리태섭, 전옥빈로인들은 년로한 몸이지만 인민군대의 전투력강화에 적은 힘이나마 이바지할 일념을 안고 집짐승들을 기르면서 많은 고기와 알을 성의껏 마련하여 군인들의 전투적사기를 북돋아주고있습니다.

집에서 편안히 여생을 보낸다고 누가 탓할 사람은 없지만 군인들의 친할아버지, 친할머니가 된 심정으로 원군길에 자신들의 순결한 량심을 바쳐가고있는 로인들을 대할 때마다 저도모르게 머리가 숙어지군 합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언제나 당과 수령,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저도 혁명의 꽃을 계속 피워나갈 굳은 결의를 다지군 합니다.

정말 인민군군인들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쳐가는 이런 훌륭한 사람들이 있어 우리의 군민대단결이 그처럼 굳건하고 우리 인민군대의 위력이 비상히 강화되는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평성시 은정동 72인민반
영예군인 리 영 학

선군으로 백승떨치는 위대한 백두령장

백두의 위대한 선군령장을 우리 혁명무력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 력사의 그날로부터 어느덧 2돐이 되였다.

우리 인민모두와 세계 진보적인류는 희세의 천출명장을 모시여 김일성, 김정일조선의 앞날은 끝없이 밝고 창창할것이라는 확신에 넘쳐 이날을 맞이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그이의 필승의 령도따라 우리 군대와 인민이 헤쳐온 력사의 그 나날은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긍지와 자부심을 안겨주었으며 반제자주위업실현을 위해 투쟁하는 세계 혁명적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락관을 가져다주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김정은동지는 혁명의 령도자, 인민의 지도자로서의 자질과 품격을 훌륭히 갖추고있는것으로 하여 인민들로부터 지지와 사랑을 받고있으며 이에 대하여 세상사람들도 인정하며 탄복하고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유훈을 받들고 전당, 전군, 전민이 한결같은 의사와 절대적인 신뢰심을 담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수행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였다.

주체100(2011)년 12월 30일, 이날은 너무도 뜻밖에 어버이장군님을 잃고 가슴가슴에 슬픔과 비분의 멍이 들었던 우리 군대와 인민의 심장속에 철의 기둥을 세워주고 힘과 용기를 안겨준 뜻깊은 날이였다.

세계는 이날에 우리 장군님께서 한평생 이어가신 선군길에 거연히 나서신 또 한분의 위대한 백두령장을 뵈왔다. 우리 조국 그 어디서나 더 높이, 더 기세차게 나붓기는 승리의 기치, 최고사령관기의 펄럭임소리를 들었다.

세계 진보적인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시고 흘러온 나날을 체험하면서 반제자주위업의 성새는 더욱 굳건하며 최후의 승리는 위대한 천출명장을 높이 모신 우리 인민에게 있다는것을 다시금 확신하였다.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끈질긴 반공화국고립압살소동과 침략책동들을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리시는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지략과 담력앞에서 세계는 경탄을 금치 못했다.

미제와 남조선괴뢰호전광들은 커다란 상실의 아픔을 겪은 우리 조국을 어째보려고 미쳐날뛰였다.

주체101(2012)년의 첫자욱을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방문하시는것으로 떼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끊임없는 전선시찰의 길을 이어가시며 조국과 혁명,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였다.

인민군구분대들을 찾으실 때마다 군인들에게 백승의 담력과 신심을 안겨주시며 적들이 움쩍하기만 하면 단매에 때려부시라고 힘주어 말씀하시였다.

적들이 한창 《키 리졸브》, 《독수리》합동군사연습을 강행하고 있던 때인 지난해 3월에는 최대의 열점지대에 위치한 판문점을 찾으시여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필생의 념원을 기어이 실현하여 후대들에게 통일된 조국을 물려줄 철석의 의지를 다지시였다.

허장성세하던 적들은 혼비백산하여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였다. 세계는 그 담대한 기상과 배짱앞에 환성을 올렸다.

언론들에서는 《김정은최고사령관은 조선의 국력과 군력, 민심에 기초하여 현란한 묘기들을 보여주는데 대내, 대외를 가르지 않고 분석하면 그 특징이 변화무쌍이다.》, 《김정은최고사령관의 활동은 외부에 내놓는 고등수학문제이다. 그것도 난문제중의 난문제다.》라는 경탄의 목소리들이 울려나왔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는 미제와 그 추종세력의 로골적인 핵위협공갈과 전쟁책동을 짓부시며 강철의 기상을 만천하에 떨치시였다.

그이께서는 적들의 무모한 핵전쟁광증과 군사적도발책동들을 초강경의 천변만화한 지략과 담력으로 짓부셔버리시였다.

다치면 터질것만 같은 첨예한 정세로 하여 한줄기 바람소리조차 범상하게 들을수 없는 준엄한 시기에 서남전선 최남단의 섬방어대들을 시찰하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세계는 경탄하였다.

영국선군정치연구협회와 주체사상연구소조는 공동성명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 일촉즉발의 위기가 조성된 엄혹한 시기 세계에서 가장 첨예한 지역인 이곳을 시찰하신것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는 퇴성벽력과도 같다. 그이의 시찰은 미국의 그 어떤 위협공갈에도 굴복하지 않는 조선인민의 억센 기상과 적들이 감히 침략전쟁을 도발한다면 조국통일위업을 기어이 이룩하고야말 단호한 의지를 반영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선군혁명령도가 있기에 조선인민은 미국의 압살책동을 물리치고 반드시 승리할것이다. 김정은원수님은 조선의 통일을 안아오실 위대한 선군령장이시며 반제전선의 최고사령관이시다.》

우리 민족이 대국상을 당한 2년전 12월에 온갖 원쑤들이 혹시나 하고 기대했던 그 무슨 《급변사태》요, 《변화》요 하는것들이 얼마나 가소로운 망상이였는지 세계는 알았다.

선군의 태양이신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담력과 배짱, 지략과 슬기를 그대로 이으신 또 한분의 강철의 령장을 백승의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인류력사에 자랑스럽게 기록되였다.

우리의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

적들은 그이의 힘을 너무도 모르고있다. 그이께서 지니신 가장 큰 힘은 군인대중에 대한 믿음과 사랑, 정이였다.

그 어떤 최신식군사장비도, 수천수만의 대적도 이 위대한 힘앞에서는 녹쓴 파철무지, 송장의 무리가 되고만다.

군인들에 대한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랑과 정의 의미를 세계는 다는 알수 없다.

이 세상 어느 지휘관이, 어느 사령관이 자기 전사들과 팔을 끼고 어깨를 겯고 전우가 되고 동지가 되여본적이 있는가.

세계력사 어느 갈피에 최고사령관이 전사한 군인들의 묘의 묘주가 되여본적이 있는가.

우리의 혁명무력에 관통되여 있는것은 사랑과 믿음이고 그에 대한 보답과 충정이다. 하늘같은 믿음과 불같이 뜨거운 사랑을 받아안았으니 더 바랄것이 무엇이고 주저할것이 무엇이랴.

평범한 군관의 아들의 첫돌생일을 헤아려 사랑의 선물도 안겨주시고 한명한명의 병사들을 곁에 세워 기념사진도 찍어주신 우리의 최고사령관동지이시다.

전투임무수행중 뜻하지 않게 희생된 군인들의 사진들을 한장한장 쓰다듬으시며 밤을 지새우시고 그들의 묘를 찾으시여서는 포부도 크고 위훈을 세우려는 꿈과 희망으로 가슴 불태우며 복무의 나날을 보낸 용사들과 영웅이 되여 고향으로 돌아오겠다고 싱글벙글 웃으며 떠난 아들들의 희생을 두고 눈물을 흘릴 부모들,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던 안해들을 생각하면 가슴에서 억장이 무너지는것만 같다고, 내 마음이 이렇게 아픈데 그들의 심정이야 오죽하겠는가고 갈리신 음성으로 말씀하신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이시다.

그이의 한없이 숭고한 사랑과 의리의 세계를 알기에는 적대세력들의 그 어떤 책략가들이나 장성들, 돈의 고용병들이 너무도 취약하고 비천하다.

올해에 미제가 추종세력들까지 규합하여 조선반도에서 방대한 핵무력을 동원한 핵전쟁연습소동을 발광적으로 벌린것은 불무서운줄 모르고 헤덤비는 부나비의 가련한 망동에 지나지 않는다.

조선인민군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무비의 담력과 배짱, 슬기와 지략을 그대로 닮고 그이의 믿음과 사랑을 자양분으로 하여 더욱 강대해진 천하무적의 무장력이다.

적들이 감히 무모한 불장난으로 우리의 자주권을 티끌만큼이라도 건드린다면 적의 아성은 한순간에 불바다가 되고말것이며 조국통일대전의 위대한 승리로 이어질것이다.

우리 군대와 인민의 삶의 전부이시고 승리의 기치이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계시여 선군조선의 앞길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본사기자 리철혁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 특집

위인의 미소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 2돐에 즈음하여 여러 나라 출판보도물이 특집하였다.

중국 홍콩잡지 《국제련계》 12월호는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들을 모시고 《마식령속도》 등 여러 제목의 글을 편집하였다.

잡지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김정은동지를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은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할수 있는 근본담보를 마련한 특기할 사변이였다.

그이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심으로써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이룩하신 주체의 군건설업적이 굳건히 고수되고 인민군대가 수령의 군대, 당의 군대로 더욱 강화되게 되였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는 백두의 기상과 공격정신으로 일관된 빨찌산식령도, 천하를 휘여잡아 화를 복으로 전환시키는 백승의 령도, 숭고한 계승과 대담한 혁신의 불멸의 령도이다.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국방공업발전이 적극 추진되고 인민군대의 군사기술적위력이 비상히 강화되고있다.

지난 2월 제3차 지하핵시험의 성공으로 조선은 핵보유국의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였다.

김정은령도자께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2013년 3월전원회의에서 새로운 전략적로선을 제시하심으로써 선군조선의 존엄을 변함없이 수호하고 주체혁명위업의 최후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강위력한 무기가 마련되였다.

로씨야신문 《에쓰.엠.노메르 아진》 19일부는 김일성광장 주석단에 계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여러 제목의 글을 옹근 한면 특집하였다.

신문은 《위인의 미소》라는 제목의 글에서 김정은각하의 미소는 세인을 매혹시키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각하의 미소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있는가?

우선 인민을 따뜻이 품에 안아 사랑과 정으로 보살펴주는 위인의 풍모가 담겨져있다. 김정은각하께서는 군인들과 인민들을 만나실 때마다 환하게 웃으신다. 그이의 미소에는 또한 제국주의자들과의 대결전에서의 최후승리를 확신하는 강자의 여유가 담겨져있다.

그이의 환하신 미소와 더불어 조선인민앞에는 언제나 빛나는 승리만이 있을것이다.

나이제리아주체사상연구전국위원회 인터네트홈페지는 17일 《근위사단과 김정은최고사령관》, 《조선의 령도자와 아이들》이라는 제목으로 경애하는 원수님의 위인적풍모를 소개하는 글들을 올렸다.

【조선중앙통신】

진짜불안정은 누가 조성하는가

일본정부가 얼마전에 결정한 새 《방위계획대강》에서 우리가 《지역 및 국제사회에 있어서 중대한 불안정요인》으로 된다느니 뭐니 하고 걸고들었다.

정말 삶은 소가 웃다가 꾸레미터질 황당한 나발이다.

시비군의 악습은 현실을 과장하고 거짓을 늘어놓으며 제 잘못도 남에게 뒤집어씌우기 좋아하는것이다. 일본이 바로 그런 악습을 가지고있다. 《불안정요인》의 감투를 우리에게 뒤집어씌우려 하는것만 놓고보아도 잘 알수 있다.

오늘날 조선반도와 그 주변지역에서 정세불안정이 지속되고있는 주되는 책임이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적대시정책을 고집하면서 련이은 침략적인 합동군사연습으로 정세를 긴장시키고있는 미국과 그에 편승하여 어부지리를 얻어보려고 날뛰는 일본 등 추종세력들에게 있다는것은 세계 진보적인류가 공인하고있는 현실이다.

올해에 일본은 미국, 남조선괴뢰들과 공모결탁하여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량자, 3자합동군사연습들을 여러차례 벌려놓았다. 우리는 매우 불쾌하고 분노가 극도로 치솟았지만 최대한의 자제력을 발휘하였다.

이것만 놓고보아도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있는가를 똑똑히 알수 있는것이다. 일본은 우리의 자위적억제력강화에 대해 말할 자격도 체면도 가지고있지 못하다.

일본정부가 늘어놓은 그 무슨 《불안정요인》타령은 더욱더 군국화, 우경화되여가고있는 일본에 집중된 국제적인 이목과 경계심을 분산시키고 재침야망을 기어이 실현해보려는 간특한 궤변이다.

현 일본정부는 패망후 지금까지 보기 드문 극우익적인 정부이다. 집권한지 한해 남짓한 사이에 현 정부는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한 법들을 적지 않게 조작해냈다. 특히 특정비밀보호법과 국가안전보장회의설치법 등의 조작은 력대 어느 정부도 감히 엄두를 내지 못하였던것들이다.

하기에 지금도 일본인민들과 야당들, 사회단체들은 특정비밀보호법을 철회, 개정하라고 성명을 발표하고 항의집회, 시위를 벌리고있다. 국제인권단체, 유엔인권고등판무관, 미국신문 《뉴욕 타임스》까지도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행위》, 《위험한 시대착오》라고 비난해나서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와 자민당은 이에 귀머거리흉내를 내고있다.

새 《방위계획대강》결정도 원래는 올해에 해야 할 문제가 아니다. 2010년에 결정한 《방위계획대강》은 5년을 기한으로 한것이였다. 따라서 예정대로 되자면 2015년이후에 다시 결정해야 하는것이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2010년에 결정한 《방위계획대강》의 시행을 중지시키고 새 안을 작성하여 결정하였다. 새 《방위계획대강》은 《자위대》의 해공군무력을 대폭 강화하여 우리 나라 등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압도해보려는 현 정부의 야망이 담긴 패권문서, 재침문건이다. 로씨야전략기술분석쎈터의 한 전문가는 일본이 새로 작성한 《방위계획대강》은 명백히 조선과 중국 등을 겨냥한것이라고 폭로하였다.

세계가 국우익으로 줄달음치는 일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일본정부는 자국에로 집중되는 세계의 경계심과 우려를 우리에게로 돌려보려고 잔꾀를 부리고있다.

일본반동지배층이 군사대국화와 재침의 길로 나아가기 위한 저들의 범죄적책동을 그런 서툰 잔꾀로 감추어보려는것은 절대로 통할수 없다.

현실이 보여주다싶이 진짜불안정요인은 과거 범죄를 덮어버리고 《대동아공영권》의 옛꿈을 이루어보려고 분수없이 날뛰는 일본이다.

군사대국화를 통해 주변나라들을 군사적으로 압도하고 재침을 하여 과거범죄의 책임이라는 구속에서 벗어날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처럼 큰 오산은 없다.

오늘의 시대는 19세기 후반기, 20세기 전반기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일본이 과거시대처럼 침략과 략탈에 무분별하게 날뛸수 있는 국제적환경은 절대로 조성되지 않을것이다. 일본이 전진하는 력사의 수레바퀴에 매달려 그를 후진시켜보려고 악을 쓰지만 그것은 헛수고에 불과하다.

일본정부는 지금의 좋지 못한 행위들이 자기 나라의 운명을 내걸고 하는 모험적인 도박이라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리경수

《조선인민의 크나큰 영광》

지난 2년간은 우리 인민과 세계 진보적인류가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 높이 모신것이 얼마나 크나큰 영광이고 행운인가를 절감한 나날이다.

하기에 오늘 진보적인류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최고사령관으로 모신것은 조선인민의 크나큰 영광이라고 하면서 그이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업적을 돌이켜보며 다함없는 칭송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파키스탄 카라치주체사상연구 청년 및 대학생조직 책임자는 다음과 같이 토로하였다.

김정은동지께서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의 중책을 지니신지 얼마 안되지만 이 기간에 세계는 나라의 자주권과 인민의 안전을 가장 완벽하게 지키시는 걸출한 령도자의 모습을 보았다.

그이는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최고사령관이시다.

그이께서는 2012년 1월 1일 조선인민군 근위 서울류경수제105땅크사단을 찾으시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을 빛나게 계승완성하실 철의 의지를 세계에 과시하시였다.

위대한 김정일동지와 선군혁명령도의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김정은동지께서는 민족의 번영과 선군위업완성에 불멸의 공헌을 하신다.

말레이시아 드림엔터스회사 부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원수는 령도와 덕망에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령도자 그대로이시다. 그이께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김정일각하의 선군령도를 보좌해드리시며 인민군대를 무적의 강군으로 강화발전시키시였다.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이 조선을 압살하려고 제아무리 날뛰여도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가 있고 강력한 군력이 있는 한 조선은 언제나 승리할것이다.

이딸리아공산주의청년전선 전국조정자 알렉싼드르 무스떨로는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세계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에서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이 힘있게 추진되고 자체의 힘과 기술로 인공지구위성을 궤도에 진입시키는 등 경이적인 사변들이 창조되고 있는데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시하고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계승완성해나가시기에 조선의 앞날은 창창하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의 현명한 령도밑에 조선은 자주의 길, 선군의 길, 사회주의길로 변함없이 전진할것이며 김일성-김정일주의는 승리의 기치로 영원히 빛을 뿌릴것이다.

먄마경제주권유한회사 행정총국 국장 탄 툰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김정은원수께서는 조선의 당과 국가, 군대를 현명하게 령도하시여 강성국가건설에서 수많은 기적을 창조하시였으며 나라의 방위력을 백방으로 다지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계시여 조선은 오늘 전체 군민의 일심단결을 이룩하고 강위력한 핵억제력을 보유한 불패의 강국으로 위용떨치고있다.

김정은각하를 당과 국가, 군대의 최고령도자로 높이 모신 조선의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유훈대로 반드시 강성국가를 건설하고 조국통일을 이룩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련대성 브라질위원회가 지난해 12월 31일 인터네트홈페지에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활동사진문헌을 모시고 《미래를 사랑하시는 령도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글은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오늘 국제사회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으시는분 하면 누구나 조선의 김정은최고령도자를 꼽을것이다. 온 나라 방방곡곡에로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이의 현지지도는 세계언론계의 가장 큰 관심대상이다.

거침없고 활달하시며 여유있는 자세로 인민들과 교감하시는 그이의 모습은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저도모르게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고 누구나 매혹을 금치 못하게 한다.

특히 사람들이 감복하게 되는것은 김정은령도자의 후대들에 대한 각별한 사랑이다.

김정은령도자께서는 설명절에 즈음해서 만경대혁명학원을 찾으시여 너무 기뻐 눈물을 흘리는 원아들의 볼을 다독여주시고 식사하는 모습까지 오래동안 보아주시며 친부모보다 더 따뜻한 혈육의 정을 부어주시였다.

국제사회는 어린이들을 극진히 사랑하시는 그이의 모습에서 조선의 창창한 미래를 보고있다. 김정은령도자를 따라 휘황찬란한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나아가는 조선인민에게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먄마련맹련대성발전당 중앙집행위원회 위원 아웅 테인 린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께서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위업을 훌륭히 계승하시여 조선의 당과 군대와 인민을 현명하게 이끄심으로써 조선은 강성국가건설에서 날에 날마다 새로운 기적을 창조하고있으며 조선인민군은 그 어떤 대적도 단매에 쳐부실수 있는 필승불패의 무력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은각하의 령도밑에 조선의 군대와 인민이 위대한 김일성주석과 김정일각하의 숭고한 위업을 반드시 실현해나가리라고 확신한다.

본사기자

미국의 부당한 제안 배격

아랍국가련맹 총서기 나빌 아브둘라흐 알 아라비가 21일 까히라에서 진행된 한 회의에서 연설하면서 미국의 부당한 제안을 단호히 배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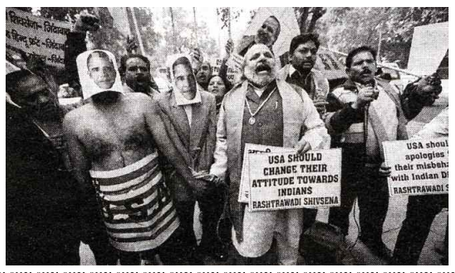
최근 미국이 팔레스티나독립국가창건후 이스라엘의 안전보장을 운운하면서 요르단계곡에 10~15년동안 이스라엘군을 주둔시킬데 대한 그 무슨 제안을 내놓은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를 절대로 받아들일수 없는것이라고 단언하였다. 그는 팔레스티나인민은 자기 령토에 단 한명의 이스라엘군이 남아있는것도 허용하지 않을것이며 만일 그렇게 된다면 그 어떤 평화협상도 없을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녹아나는 나토군

아프가니스탄주둔 나토군이 이 나라 항쟁세력의 공격으로 계속 녹아나고있다. 23일 남부와 동부지역에서 항쟁세력의 무장공격으로 2명의 나토군병사가 또 황천객이 되였다.

이로써 올해에 들어와 현재까지 아프가니스탄에서 죽은 나토군병사수는 158명으로 늘어났다.

【조선중앙통신】



인디아에서 반미시위

해결전망이 어두운 평화회담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평화회담이 의연 교착상태에 빠져있다.

지난 7월 량측은 평화회담을 재개하고 앞으로 9개월동안에 평화회담을 진행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회담의 재개가 중동지역에 평화를 깃들게 하는 중요한 계기로 되는것과 관련하여 국제사회의 열렬한 환영을 받았다. 그러나 모처럼 마련된 회담은 이스라엘의 불순한 행위로 하여 난관에 부딪치게 되였다.

이스라엘이 유태인정착촌건설문제를 또다시 들고나온것이다. 중동평화문제가 세기를 이어오며 오늘까지 탁상공론으로 되여오고있는것은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정책이 그 주되는 근원의 하나로 되고있다.

2010년 9월에도 이스라엘의 유태인정착촌확장책동으로 말미암아 중동평화회담은 결렬되게 되였으며 3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야 겨우 회담이 다시 열릴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게 되였다.

이스라엘은 회담에 앞서 팔레스티나인수감자 26명을 석방하였다. 그러면서 이러한 조치가 여러 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앞으로 104명의 팔레스티나인수감자를 모두 석방할것이라고 하였다. 평화회담을 위해 할수있는껏 다 한다는것이였다.

얼핏 보기에 이스라엘이 중동평화과정에 관심이 있는듯 하였다. 하지만 그것은 한갖 기만에 불과하였다. 중동평화를 파괴해온 장본인을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국제적인 항의와 규탄을 회피하기 위해 이스라엘이 포로석방이요 뭐요 하며 《열성》을 보였던것이다.

중동평화회담의 재개소식에 국제사회가 한결같은 환영을 보내였다. 그런데 회담이 팔레스티나의 정의의 위업을 지지하는 마당으로 고조되자 이스라엘은 당황망조하여 동부꾸드스와 요르단강서안지역에 또다시 유태인정착촌을 건설하는것으로 평화회담의 진척을 가로막았다.

유태인정착촌건설은 단순한 주택건설문제가 아니다.

동부꾸드스는 팔레스티나가 자기의 수도로 여기고있는 지역이다. 이스라엘은 수십년전 팔레스티나땅에 비법적으로 유태국가의 말뚝을 박은 때로부터 령토팽창야망을 추구하면서 아랍땅강탈행위를 일삼고 강점지역에서 유태인정착촌건설책동을 끊임없이 감행해왔다.

국제사회계는 이를 견결히 반대하고있으며 중동평화문제는 마땅히 《땅과 평화를 바꾸는》 원칙에서 해결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현시기 동부꾸드스는 그리스도교와 유태교, 이슬람교성지가 있는 지역으로서 이에 대한 통제권을 두고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에는 심각한 의견과 대립이 존재하고있다.

정치적으로 매우 예민한 이 지역에 수많은 유태인정착촌을 건설하겠다고 하는 이스라엘의 망동은 대화의 분위기를 파탄시키기 위한 고의적인 행동인것이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티나의 독립국가창건기운이 높아질 때마다 유태인정착촌건설강행조치를 취하군 하였다.

유태인정착촌건설중지여부는 이스라엘이 평화를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를 가르는 시금석으로 된다.

이스라엘의 온당치 못한 처사를 두고 많은 나라들에서 규탄의 목소리들이 높아가고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동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는 아랍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지향과 요구에 도전하여 유태인정착촌확장에 악을 쓰며 매달리고있다.

얼마전 아비그도르 리에베르만이 이스라엘의 외무상자리에 다시 올라앉았다. 지난 시기 리에베르만은 부정부패혐의로 기소된 후 외무상직에서 사임하였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중동문제를 저들의 불순한 목적대로 끌고가기 위해 재판소를 내세워 그에게 무죄를 선언하게 하고는 그를 다시 외무상자리에 앉혀놓았다. 그는 팔레스티나에 대한 강경로선을 항시적으로 견지하고있는 인물이다. 전문가들은 그의 재임이 중동평화회담을 저애하는 큰 장애로 될것으로 평하고있다.

이스라엘의 책동으로 하여 중동문제는 현재 답보상태에 있다고 말할수 있다.

그 원인은 뿌리깊은 이스라엘의 령토팽창야망에도 있지만 기본은 이스라엘을 령토팽창에로 암묵리에 부추기는 미국의 그릇된 처사에 있다.

미국은 팔레스티나와 이스라엘사이의 직접회담재개의 《중재자》, 《조정자》로 나서서 분주탕도 피우고 이스라엘에 대고 속에 없는 으름장도 놓았었다. 하지만 중요한 대목에 와서 미국은 자기의 본색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싸고돌며 팔레스티나인민의 독립국가창건노력을 반대해나섰다.

미국은 팔레스티나—이스라엘문제를 처리하는데서 줄곧 이스라엘의 편만 들며 팔레스티나인민들의 자주권을 위한 투쟁을 가로막고있다. 이것은 팔레스티나—이스라엘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커다란 장애로 되고있다.

얼마전에도 중동에 날아간 미국무장관 케리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티나사이의 평화회담이 실패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9개월이 지난 후에도 회담을 계속할것을 바란다는 식의 일장훈시를 하였다. 마치도 저들이 이 문제에 관심이나 있는듯이 생색을 내였던것이다. 그러나 지어먹은 마음 사흘 못 간다고 미국의 진짜속심은 저들의 《위신》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적극 부추겨 중동에서의 지배권을 확장하자는데 있다.

미국은 지금까지 유태복고주의자들의 반아랍감정과 령토팽창야망을 교묘하게 리용하여 저들의 중동지배전략을 실현하려고 책동하여왔다. 미국이 진실로 중동문제 특히 팔레스티나문제해결을 바란다면 이스라엘일변도정책을 버리고 팔레스티나의 독립국가창건을 진심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정세분석가들은 앞으로 중동평화회담이 미국의 비호를 받는 이스라엘의 평화파괴책동으로 하여 지속적인 답보상태에 머물것으로 내다보고있다.

본사기자 라명성

오늘의 세계

첨예화되는 중미마찰

중국과 미국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갈등이 지속되고있다.

최근 미국이 중국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만에 두번째로 아파치직승기를 판매하기로 하였다.

중국외교부 대변인은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판매를 견결히 반대한다고 하면서 그러한 행위를 당장 그만둘것을 강력히 요구하였다.

오래전부터 이 문제를 둘러싼 두 나라사이의 마찰은 해소되기는커녕 날이 감에 따라 더욱 치렬해지고있다. 지난 시기에도 미국은 대만에 대한 중국의 《위협》을 운운하며 대만의 《방위》요구를 구실로 이곳에 수많은 첨단무장장비들을 들이밀었다. 현시기에 와서도 미국은 중국이 서태평양지역에서 전략적우위를 장악할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이를 막아야 한다고 떠들고있다. 아시아의 일부 동맹자들에까지 첨단무장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있다. 미국은 어떻게 하나 중국본토와 가까운 대만을 저들의 고도기술장비들로 무장시켜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지배권을 확립하려 하고있다. 다른 한편으로는 대만분렬주의세력에 입김을 불어넣어 그들로 하여금 대만독립을 주장해나서게 함으로써 중국의 분렬을 꾀하여 여기에서 어부지리를 얻어보려 하고있다. 그뿐이 아니다. 미국은 위기에 처해있는 저들의 경제를 수습할 심산으로 무기업체들의 돈벌이를 위해 대만에 첨단무장장비들을 팔아먹고있다.

전략적중심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정한 미국은 대만에 대한 무기수출을 통해 중국에 대한 포위환을 구축함으로써 지배주의목적을 실현해보려 하고있다. 2020년전까지 60%의 수상함선과 잠수함을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옮기려고 계획하고있는것이 그것을 실증해주고있다.

미국의 이러한 기도가 중국의 더 큰 반발에 부딪치게 되고 이로 하여 그들사이의 대립이 더욱 첨예화되리라는것은 불보듯 뻔하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미국의 대중국전략은 외교라는 말보다 서로가 군사력에 의한 힘의 대결관계로 넘어갈것이라고 평하고있다.

벌써부터 그러한 조짐들이 눈에 띄게 나타나고있다.

얼마전 중국남해의 공해상에서 중국해군함선과 미군의 이지스순양함선사이에 충돌하기 직전까지 접근했던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 사건으로 중국과 미국사이의 마찰이 더한층 불거지게 되였다.

미국방장관 헤이글은 기자회견에서 중국함선의 행동은 무책임하다고 중국을 비난해나섰다. 미국의 출판보도계도 이것은 매우 보기 드문 현상이며 미리 계획한 고의적인 사건이라고 중국을 비방중상해나섰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은 미군함이 자국의 정상적인 해상활동을 감시하고 방해할 목적으로 중국항공모함편대의 내부방어구역에 들어왔으며 미국측의 태도는 나쁜짓을 한 사람이 먼저 고자질하는 격이라고 반박해나섰다. 이번 사건을 놓고 전문가들은 미국이 더는 서태평양에서 제 마음대로 편안하게 행동할수 없게 되였다고 평하면서 이 사건은 중국이 미국에 주는 일종의 정치적통고이며 동아시아지역에서 중국이 미해군의 존재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것이라고 평하고있다.

현재 중국은 미국이 대만에 계속 고도기술무기를 제공하여 대만군사력을 더욱 높여주면서 저들의 군사적부속물로 리용하려 하는데 대해 예리하게 주시하며 군사적대응조치를 취하는데로 나가고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중국과 미국사이의 첨예한 군사적갈등은 더욱 심화될것이라고 보고있다.

본사기자

ㄱ-312040 (정기간행물번호 제13003호)(정기간행물발송특별 취급승인 제3호) 전 화: 교환 373-2312, 편집국 373-1328, 론설원실 373-5428, 당력사교양부 373-5528, 당생활부 370-4528, 사회주의교양부 372-3528, 공업부 373-0263, 농업부 373-5628, 과학문화부 372-4628, 조국통일부 372-4882, 국제부 373-4728, 사진보도부 373-0712, 특파기자부 372-4328. 편집위원회